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진관 지도교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포가티(Fogarty) 계열모형에 기반한
미술교과와 통합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중학교 미술교과와 역사교과 중심으로-

201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배현미

포가티(Fogarty) 계열모형에 기반한
미술교과의 통합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중등 미술과 역사 교과 중심으로-

김진관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배현미

인 준 서

배현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현대의 학문에서는 각 분야를 세분화하고, 많은 지식을 체계화,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는 미술교육영역에서도 체험, 표현, 감상을 창의적이며 자발적인 학습문제로 제시되어 나타난다. 학교 안에서는 일정한 교육과정으로 전달하다 보니 학습자의 흥미보다는 지식전달에만 급급한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현 교육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수준의 대량화로 인해서 정보와 내용을 섭렵하기에는 한계성을 보인다. 그래서 통합교육과정을 활용함으로써 교사들은 이미 제시되는 교육과정을 수동적인 실행자가 아닌 학습자의 수준에 맞춘 교육과정으로 재구성 할 수 있다. 또 성공적인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결정을 하는 적극적인 의사결정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교육과정의 실행은 확일화하고 고정적이며 융통성이 부족한 현 교육실제에 전환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여러 교과간의 학문을 융합시키고자 하였다, 그 중 미술과 역사라는 교과목이 갖는 역사적 배경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는 한 주제로 시대의 올바른 관점과 학습자에게 스스로 문제를 선별하는 능력과 흥미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함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지식에 대해 통합적인 학습활동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미술교과와 역사 교과의 통합교육으로 같은 주제를 통해서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요지를 얻었다.

첫째 . 미술과 역사에서 갖는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삶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둘째 . 학습자는 지식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며,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가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로는 조력자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역사를 이해하면서 현대를 이해하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미술과 역사의 이해도와 개념 형성에 도움을 준다. 또한 단순히 미술활동에 목적이 아닌 문화를 이해하는 개념에서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두 교과간의 교차되는 맥락을 살펴보고 학습자에게 통합적인 체험과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교사는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 활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두 교과의 통합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에 있어서 개념지식 중심의 주제를 절제하고 활동중심의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21세기에 필요한 고등 사고 능력이나 창의력을 신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II. 포가티 (Fogarty)의 통합교육과정	6
1. 통합교육과정의 개념 및 필요성	6
1) 통합교육과정의 개념	6
2) 통합교육과정의 필요성	8
2. 통합교육과정의 특성	10
1) 통합교육의 교육적 기능	10
2) 교육과정 통합방법	15
3) 통합교육과정의 유형	19
3. 포가티 (Fogarty) 의 교육 모형	23
III. 미술교육에서의 통합교육	31
1. 미술교과와 역사교과의 교육과정 분석	31
1) 미술교과의 교육과정	31
2) 역사교과의 교육과정	36
2. 미술교과와 역사교과의 통합적 접근	41
1) 미술교과에 있어 통합교육의 필요성 및 유형	41
2) 미술교과와 역사교과의 통합관련성	44
IV. 주제중심에 의한 미술교과와 역사교과의 관점	47
1. 주제중심 통합교육 개념	47

2. 주제중심 통합교육 학습모형	51
3. 주제 중심 통합교육 방향과 모색	55
1) 개발 방향	55
2) 교육효과	64
V. 결 론	66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1> 통합교육과정 (교과)의 필요성	8
<표 1-2> 통합 교육과정의 분류	16
<표 1-3> J.B.Ingram 의 통합교육과정의 유형	19
<표 2-1> 포가티(Fogarty) 의 교육과정 통합 방법	23
<표 2-2> 거미줄형의 학습내용 선정 요소	27
<표 3-1> 미술 교육과정 내용 체계	34
<표 3-2> 미술교육 교육과정 전(2009), 후 (2011, 08)	35
<표 3-3> 역사 교육과정 내용 체계	39
<표 3-4> 역사교육 교육과정 전(2007), 후 (2011, 08)	40
<표 4-1> 주제 (theme), 토픽 (topic), 개념 (concept)의 관계도	47
<표 4-2> 거미줄형 모형의 개념망	51
<표 4-3> Drake의 주제 중심 통합 교육과정 모형	52
<표 4-4> 강충열의 주제 중심 통합교육 학습 모형	53
<표 4-5> 주제 중심 통합교육 - ‘꿈을 기억하노라 ’	58
<표 4-6> 주제 중심 통합교육 - ‘우리 동네 네비게이션 ’	61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사회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사회가 점점 변화해 가는 시점에서 교육은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교육과정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인 지식 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습득한 지식’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의 경험’을 주체적으로 통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간상을 요구한다. 하지만 복잡한 능력을 요구하는 빠른 사회에 발맞추지 못하고 뒤처져 있는 것이 오늘날 교육의 현실이며 문제이다. 예컨대 학교 현장에서는 통합적 능력과 개념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교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필요한 덕목을 길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학교, 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그 안에서 다양성과 창의력을 계발할 수 있는 미술교과 통합교육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미술교육을 통해서 여러 면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습득되는 지식을 통해서 학생의 삶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전인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술교육분야에서도 다양한 학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문화적 양산을 역사와 병행하여 창작할 수 있는 교육이 성행해야 한다고 본다.

현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살펴보자면,¹⁾

1) 7차 교육과정 개정안 : 교육인적자원부, 미술과 교육과정 [별책 13,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 2009-79호, pp,8-12

- 첫째,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둘째, 기초 능력의 바탕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 셋째,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 넷째,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전인교육(全人敎育)을 바탕으로 사회- 문화적 삶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학생 스스로 자연스럽게 인간다운 삶을 흡수하는 교육을 하고자 한다. 이는 통합교육의 측면에서 학교 교육과 사회 문화적인 문제를 경험하면서 학습자가 느낀 체험 방식을 더욱 쉽게 학습에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이다. 따라서 일반적이고, 획일적인 지식 습득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재구성하고, 학습에 대한 관심과,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계발하여 산업사회에 걸 맞는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통합교육과정은 198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제4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과정부터 시행되었다. 순차적으로 제5차, 제6차, 제7차에 까지 통합교육의 목적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여 각 교과목의 수업과 재량활동 수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초기 통합교육과정은 저학년에 한정되어서 운영되었는데, 이제는 저학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1세기는 고정된 삶을 벗어나 다양한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도 적응하고, 습득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사회이다. 기존의 획일화되고, 고정적인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통합교육과정은 교과내용을 재구성하고, 창의적인 교육 활동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학교가 갖고 있는 기본 정신에 얽매이지 않고, 현 시대가 요구하는 자질을 길러 줄 수 있고 의미 있

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통합교육과정이 한 교사에 의해서 제대로 개발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아직은 부족점이 많다. 예를 들어 밀접한 계열성을 갖지 않거나, 동일한 과제, 주제들이 빈번하게 반복될 소지가 있다. 지식을 습득하는 문제에 있어서 혼란스럽게 대처한다면 통합교육은 효과적이지 못한 교육과정 중 하나일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이 학년마다 달라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교사와 학습내용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에서도 교사들이 통합교육과정의 본질을 인식하고, 통합교육과정 개발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이 효과적인 운영은 지식을 전달에만 급급하지 않고, 학생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촉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창의적 수업과도 연결된다.

본 연구의 중등 미술-역사 교육에서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모색하고 미술이 공존하는 사회, 역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또한 통합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이끌 수 있으며,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술교육에는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관적인 사고력을 길러준다. 역사는 학생들에게 근원이 되는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교육으로 인물이나 사건에 관한 사실 나열식 기억대상의 교육이 아닌 역사적 흐름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이해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통합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표현 방식과, 창의력 증진으로 풍부한 감정과 폭넓은 안목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신장 시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은 변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성을 요구하고, 세계화를 구축해나가는 교육과정에서 미술교과와 역사교과가 현 시대를 반영하는 교육을 겸비시킨 통합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통합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에서 교육체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교사 위주로 진행되었던 교실수업 방법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포가티의 설계 모형과 전인교육(全人教育)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통합교육과정의 교육적의미를 살펴보고, 이 두 개의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습지도의 방법을 조사하였다. 첫째 미술교육의 학습지도 방법은 체험, 표현, 감상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각 부분마다 구체적으로 체험은 지각, 소통으로 구분되고, 표현은 주제 표현방법, 표현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감상은 미술사, 미술비평으로 나누어진다. 미술교육에서는 학생의 자율성, 창의성 등이 존중되도록 하며, 흥미, 발달 단계 및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역사교육에서는 긴 역사를 세분화하고 근대 전후로 나누어서 구체화하였다. 이는 역사라는 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보다 이해하기 쉽고, 문화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의 우리나라와 세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통합교육과정에서 대표되는 포가티의 설계모형 중 거미줄 형 또는 주제중심 통합과정을 제시하였다. 그 유형은 다른 모형에 비해서 한 주제를 통해서 두 개의 과목의 연결해주는 고리를 형성한다. 두 교과 통합을 통해서 학생이 자연스럽게 학습 내용과 흥미를 유발 시킬 수 있다.

본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 연구는 연구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서 국내에 소개된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이론적 내용을 통해 통합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고찰해 본다.

둘째, 미술 - 역사의 교육과정을 분석하면서, 해당 교과서의 다른 교육과정

을 살펴봄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제시하며, 통합교육과정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통합교육과정의 다양한 설계모형 중에서 포가티의 설계모형 중 여러 교과간의 통합 중 거미줄 형의 교육과정을 제시 후 통합수업을 할 수 있는 통합지도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학습활동은 미술교과와 역사 교과에서 주제통합교육으로 방향을 제안한다.

넷째, 앞에서 제시된 설계 모형과 연구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통합교육과정의 교육적 기대 효과를 모색한다.

Ⅱ. 포가티의 통합교육과정

1. 통합교육과정의 개념 및 필요성

1) 통합교육과정의 개념

교육에서 통합교육과정 또는 교육과정통합이라는 용어는, ‘통합’과 ‘교육과정’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말로, 다양한 방면에서 해석되고 있다. 이는 과정이냐, 결과냐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 과정으로는 ‘교육과정 + 통합 = 교육과정 통합’이고,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합 + 교육과정 = 통합교육과정’을 의미한다. ‘교육과정’ 대신 ‘교과’라는 단어가 쓰이면 통합이 개별적 교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과 통합과 통합교과는 앞의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과정과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¹⁾

통합교육과정은 학습을 할 때 보다 의미 있고, 밀접한 관련을 짓고, 광역화하거나, 주제 문제탐구를 위하여 교과의 선을 없애는 통합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교육에서는 전인교육을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고른 발달로 올바른 자아실현을 지향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사회적, 신체적, 도덕적인 발달로 두루두루 교육되어 원만한 인격자를 기르는 것으로 종합적 목적을 두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의 자율성,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 대인기술의 발달 등이 통합교육과정에서 중점이 된다.

‘통합’은 교육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개념에 대해서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곽병선은 통합교육과정이란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 종전에 전통적으로 각 학문 또는 지식의 체계에 따라 분화되고 분절되었던 것에서 탈피하고 교과중

1) 이영만, 『통합교육과정』, 학지사, 2001, p 8

심으로 학습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교과 간의 엄격한 울타리를 고려하지 않고 각 교과의 지식이나 경험을 필요한대로 재구성하여 학생의 흥미중심, 문제 중심, 특정 제재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2) 이와 같이 통합 교육과정의 정의는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의 자발적인 학습활동과, 학생중심이 되는 학습경험의 통합으로 학생들의 학습경험이 보다 유의하게 통합되도록 촉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전인교육을 통해서 학습자가 갖고 있는 지식의 개념, 흥미 중심, 특정 제재 중심 등으로 재구성하여, 영역별 수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외의 학자 중 프링 (Pring)은 통합이란 부분들의 전체성을 의미하며, 그 전체성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환되는가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부분들의 총합이 통합 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며 통합을 이룸으로써 부분들은 전체에 속하는 새로운 특성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³⁾

로웬펠드 (Viktor Lowenfeld)는 피상적인 교과 내용의 통합이 아닌, 자아동일화를 이루려면 통합은 내부에서 이루어져야만 일어 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양한 관점에서 보게 된 통합교육과정은 학습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내면화되어 자기화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춘다. 또 단순히 교과서끼리의 통합보다는, 교육내용, 교수, 학습지도법등에서 보다 나은 지식과 정보를 학습자에게 주관적인 인식으로 구성하여 습득 시킬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본다.

발전하는 교육에서는 지식 습득에 있어서 정보화, 세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개인적 창의성의 획득을 강조하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

2) 통합교육과정의 필요성

2) 손승정 「문제중심학습(PBL)을 기반으로 한 미술과와 타 교과의 통합교육 방안연구」, 『한국미술교육학회』, 2010, p 8

3) 표지숙, 「개정초등미술과 교육과정 (2007)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통합 모형 개발 연구」 경인교육대학원, 2009, p 9

학습자가 일정한 시간에 다양한 교과를 학습하기보다는 , 기본적인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큰 3과목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개정 제7차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 수업의 일정은 학교의 자율적인 형식에서 운영되면서, 동시에 사회적 경험을 요구하는 미술, 역사 학습에서는 매우 부족하게 되어서 자아의 통합적 성장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부족하다.

그리고 이 두 과목의 수업은 집중이수제의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중학교과정 중에서 한 학년에 맞추어서 수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이해력 보다는 이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테너 (Tanner)는 최근 지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지식의 전문화, 세분화의 경향, 고도로 분업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다변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에서의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⁴⁾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지식에 대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으로 통합된다면 학습자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표 1-1 > 통합교육과정 (교과)의 필요성⁵⁾

영역	필요성 (가치)
① 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인이 부딪치는 일상생활의 문제나 사회가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 하는 능력을 길러줌 ② 협동심과 민주주의 생활 태도를 길러줌 ③ 인지, 정, 의 신체의 균형적 개발을 의미하는 전인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줌 ④ 학교생활의 적응과 만족감이 증대됨
②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과 간의 내용 중복을 피하여 학습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줌 ② 교육내용의 양적 증가에 대처할 수 있음 ③ 교육내용의 사회적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음
③ 교육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습자는 학습의 주체로서 참여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동기가 커지고,

4) 이영만 , 전게서, p 11

5) 이영만 , 재인용, p 12

	학습 결과에 있어서 책임감이 증대 됨 ② 학습의 과정이 공포나 두려움 없이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낌 ③ 학습경험에서 문제를 다룰 기회가 많아지므로 학습경험에 있어서 전이 효과가 큼
--	--

위 통합교육과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불필요한 시간부담으로 학습자가 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중복되는 수업으로 수업의 효과는 높아질 것이고, 결과 중심보다는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에서 적절한 수업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학습자가 주체가 되면서 기존의 학습에 대한 만족도, 흥미 등을 알 수 있고, 학습에 있어서 불안과, 공포는 사라질 것이다.

통합교육과정을 현 시대에 다양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학습내용을 연결하여 습득이 가능하다. 정보처리 체계에 맞게 지식들을 서로를 연결시켜서 처리하는 경향으로 부족한 정보를 처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통합교육과정은 전인교육의 실현이라는 목적으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들이 균형적으로 통합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므로, 개인의 성장, 자아실현, 사회적, 도덕적, 정서적인 발달이 균형을 갖춘 인격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들을 보다 더 넓은 사회에서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통합교육과정의 특성

1) 통합교육의 교육적 기능

통합교육과정에서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말 할 수 있는데,⁶⁾ 첫째 인식론적 기능으로 지식적인 측면, 둘째 심리적 기능은 학습의 측면,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기능은 교실에서의 상호작용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라는 측면에 관련된 기능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인식론적 기능

통합교육과정에서의 인식론적 기능은 앞에서 말했듯이 지식적인 측면으로 기억, 평가, 활용하는 의식작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학습자에게 있어서 도움을 주는 기능이다.

학습자는 주어지는 지식 습득에 있어서,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습득하는 것으로 지식의 변화에 대처 할 수 있게 한다는 점, 이미 습득한 지식에 있어서 서로 연결 고리를 형성해서 관련시켜서 습득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지식의 유용성과 의미를 높인다는 점이다.

첫째, 현대 산업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과 정보가 급속도로 증가로 인해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된다. 학교 안 울타리에서 수업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통합교육은 넓은 영역에서 지식이 갖는 차별성보다는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고, 또 학습자는 통합적, 구성적 학습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

둘째, 다양한 지식 영역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증대시킨다. 다양한 지식을 습득 했을 때 이해의 맥락에서 결합함으로써 그 지식의 복잡성, 상호 관련성을 증대시킴으로 지식을 의미하고 있고, 유용하게 학습하며, 활용 할 수 있게 되

6) 김재복, 재인용 , p 21

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 학습장면에서 얻어진 경험들이 상관없이 단절되어 있다가, 학습자의 경험들로 인해서 상호 연결고리가 통합하면서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이 보다 효과적으로 습득 및 성장을 촉진 시킨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통합교육과정은 지식의 주제나 개념 혹은 원리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가운데, 지식의 유용성과 의미를 더욱더 높여줄 수 있다.

지식 습득에 있어서 대부분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습득된 지식의 종류와 이들의 사용이 학교교육의 질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식의 종류는 크게 보아 명시적 지식 (Propositional Knowledge: Knowing that : ~ 라는 것을 안다), 방법적 지식 (Procedural knowledge: knowing how : ~할 줄 안다.), 그리고 직접적 지식 (Knowledge by acquaintance : 직접적인 대면에 의해 아는 것) 이 있는바 학교에서는 주로 명제적 지식만을 강조해 왔다.⁷⁾ 학습자는 기존의 교과 중심 형 교육과정체제에서 실생활에서 주로 사실적 지식 내지는 명제적 지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통합교육과정에서는 방법적 지식의 습득과 활용을 통한 직접적 지식을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② 심리적 기능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와 학습내용 간의 상호적 작용에 있어서 학습자의 심리적인 차원에서 교육효과를 기대하는 기능이다. 이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통합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학습과정에 일치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 둘째로, 통합교육과정은 학습자의 발달 수준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실시 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 셋째로 통합교육은 학습자의 전인적 인성의 개발을 도와준다. ⁸⁾

7) 김재복, 전게서, P 24

첫째, 통합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학습과정에 일치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오수벨 (Ausubel)에 따르면 , 학습자가 현재의 학습내용이 지식과 관련되고, 학습 양식에 일치될 때, 의미 있게 학습 될 수 있는데, 이는 지식의 양, 조직상태, 명확성 등이 관련되어 유의미학습이 주로 이루어진다. 즉 새로이 배우는 학습내용이 학습자의 선행학습요소 - 학습자의 지식상태와 학습방법 - 에 포섭될 때 유의미학습이 이루어진다.

교육에서는 사실적인 정보의 정적인 기억 보다는 개념이나 원리 또는 문제 중심의 탐구활동을 주로 하는 동적인 학습과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통합적 지도와 인지-구성적 학습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로, 통합교육과정은 학습자의 발달 수준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 개발에 앞서 교육과정 통합의 정도와 형태는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기능적 발달의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은 유아교육, 초등학교저학년 교육, 초등학교 고학년교육, 중등교육으로 구분해서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져 한다.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는 교육은 지식의 습득에서 혼란과 공포를 주면, 흥미를 저조 시키고, 또한 내용의 습득에 있어서 혼란을 주게 된다.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에서는 표현중심의 기능적· 탈 학문적 통합을 하는 것이 좋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전 조작기에 해당하여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신체활동이 인지 과정의 주요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교육에서는 구체적 조작기의 사고 과정과 연관시켜 다양한 생활의 문제들에 관련된 다 학문적 통합을 하는 것이 좋다.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에서는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 과정에 맞추어 간학문적 또는 다 학문적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학습자들에게 필요나 요구에서 나타난 문제를 중심으

8) 한국교육과정학회, 『교육과정 :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2002, p 398

9) 한국교육과정학회, 전개서, p 399

로 구성되므로, 문제해결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 자료가 통합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한다. 학습자는 스스로가 문제에 대한 정보를 직접 찾게 되어 해결 능력에서도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로 통합교육은 학습자의 전인적 인성의 개발을 도와준다. 통합교육과정은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사회적, 자연적, 모든 현상을 단편적으로 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기 원하지 않는 것으로 특정한 분야의 지식만 갖고 가르치는 데서 나아가 개개인의 인성적 조화와 환경의 조화를 강조하고, 다양한 사상과 지식의 내적 관련을 맺도록 하여 통합적인 교육적 경험을 가르쳐야 한다.

③ 사회적 기능

사회적 기능은 교실에서의 상호작용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 번째, 사회문제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점, 두 번째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협동성을 기른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 학교와 사회를 연결시켜준다는 점이다.¹⁰⁾

첫 번째, 학습자가 사회문제에 대하여 대처 할 수 있게 해준다. 현 산업사회에서 변화는 매우 혼란 일처럼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현대사회의 문제에 당면하는 개인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지식을 통합적 활용능력 지식의 통합화가 요구 된다.

통합교과의 구성과 학습과정에서도 능력과 관심사가 다양한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을 강조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의 협동과정을 고스란히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과정 통합에서는 교육내용의 조직에서의 통합뿐 아니라 실제의 교수-학습의 과정에서의 통합도 중요시 한다. 따라서 공동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협동과 협력의 방법을 익히게 된다. ¹¹⁾

10) 김재복, 전게서, p 27

두 번째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협동성을 기르도록 해준다. 현 사회는 경쟁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업자체에서도 학습자는 같은 동기들의 상호간에 협동보다는 경쟁을 강조하는 분위가 조성된다. 이에 반해 통합교육 과정에서는 협동학습을 기초로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교사들 간의 협동적 팀 티칭, 교사-학생 간 협동적 탐구활동, 학생들 상호간의 협동적 탐구활동을 기본원리로 강조한다.

서로 다른 교과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은 지도계획을 다른 교사와 협력하여 구성하고, 학습자들이 습득할 때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이때 주제 또는 개념이나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탐구 수업이나 발견학습과 같은 심리적 과정이 수반되는 학습활동을 강조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교수-학습활동 속에서 학습자들은 스스로 협동성과 사회성을 습득하게 되고, 학습자들끼리 학습효과 역시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세 번째 학교와 사회를 연결시켜준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명시적 지식으로 학문적, 지적,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에, 사회는 계속 변화의 과정으로 실제적, 실용적, 경험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학교와 사회는 학습과 생활의 분리는 암시하고 있다.

이 분리는 학교와 사회가 상이한 가치체제를 가진다는 점이다. 즉 학문적, 지적 전통을 지닌 학교는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에 실제적인 생활 사태에 관심을 갖는 사회는 실용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 다음으로는 학교에서는 학습의 내용을 대표하고 사회는 일의 세계를 대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학교의 형식적 학습의 장소이며, 사회는 비상식적 학습의 장소라는 점이다. 이분법적 괴리현상은 통합교육에서는 학습된 내용을 실생활에서 경험을 강조하는 학습으로 사회와 학교를 이분법적 구분을 지양하고, 학습자에게 사회문제에 있어서 실제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학교에서 배우게 된 학습경험이 실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에서 그대로 이용되어 실제적인 세계에

11) 이영만, 전게서, p 6

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게 제공한다.

2) 교육과정 통합방법

오늘날 시대가 변화하면서 교육과정의 변화로 교육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조직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내용을 어떠한 관점에서 선정하는 문제와, 그 선정된 문제에 내용을 어떤 식으로 조직 하는가가 더욱더 중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유는 교과서와 교수 학습지도를 개발하고, 현장에서 어떠한 식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교육효과에서도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구조적 통합방법, 둘째 경험적 통합방법적 원리로서 제시하고 있다.

구조적 통합방법은 양적 통합의 방법과 질적 통합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교과 또는 학문의 조직요소를 병렬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재조직하여 융합시키는 것인지에 따른 것이다. 한편, 경험적 통합 방법은 내재적 통합의 방법과 외재적 통합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내재적 통합은 통합요소의 초점을 학습자의 동기나 흥미 등과 같은 심리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외재적 통합은 통합요소의 초점을 사회생활이나 사회문제등과 같은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두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 통합방법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통합 교육과정의 분류¹²⁾

학문영역의 연결방식에 따른 유형	학과 간 연계 형태에 따른 유형	학습내용 조직방식에 따른 유형
다 학문적 통합	합산적 통합	교과 분리형 단일과목 복수 활동 복수 과목 병행수업
간 학문적 통합	기여적 통합	과목 연합 형 동일주제 및 제재 연속수업 핵심과목 중심 타 과목 제재이용수업 제재중심 과목병합수업 주제중심 과목 병합수업 주제중심 과목 통합수업 능력중심 과목 병합수업
	융합적 통합	
탈 학문적 통합	기능적 통합	학문영역 초월 형

다 학문 영역적(multidisciplinary) 통합은 독립된 교과영역이 중심이 되어 타 교과와 관련되는 주제를 고려하는 것이다. 복잡한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거나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관련 학문들을 총동원하여 현상이나 문제를 일면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탐구와 문제해결을 수행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13)

간 학문적 통합 (interdisciplinary)은 통합 적인 주제가 중심이 되도록 관련된 교과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두 가지 학문이 서로 공존하면서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탐구방식이나, 탐구수준에서 새롭고 의미 있는 종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기여적 통합은 각 과목들이 기여할 수 있는 공통적 요소를 필요로 하며, 상호관련을 가지고 통합하는 형태이다. 즉 한 교과목을 가르침에 있어 부족한

12) 노용, 『주제 중심의 미술 교육과정 통합』, 미술과교육, 2005, p .104

13) 한국교육과정학회, 전게서, p .404

내용이나 방법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통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융합적 통합 방법은 어떤 연결 원칙, 공통적 문제, 상호 관심 영역에 기초를 두고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14) 교과간의 포괄적 혼합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융합적 통합을 흔히 광역적 통합방법이라고도 한다. 15)

탈 학문적 통합(extadisciplinart)은 교과외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학생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학습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학습자 중심의 입장에서 자유로운 표현활동이나 문제해결을 학습과정의 중심요소로 삼는다고 볼 수 있다. 탈 학문적 통합방법은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흥미중심의 통합, 표현중심의 통합, 경험중심의 통합, 활동중심의 통합으로 볼 수 있다.

학과간의 연계방식에서의 통합은 교과 간 연계형태 측면에서 통합의 강도에 따라 합산적 통합, 기여적 통합, 융합적 통합, 기능적 통합으로 네 가지로 분류 된다. 합산적 통합은 별개의 교과목을 양적, 구조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양적으로 통합 한다는 것은 교과목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합쳐 놓는 것을 의미한다.

기능적 통합은 교육내용인 교과지식이 바탕이 되는 실생활의 경험으로 개인의 흥미와 필요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과 사회기능과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이다. 이 제시된 문제에 관련된 모든 지식과 자료를 활용하여 탐구하거나 표현하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중심의 통합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학생의 흥미나 필요가 추출되는 일상생활의 영역으로는 언어활동, 건강 활동, 시민활동, 여가활동, 지적활동, 종교 활동, 가족활동, 직업 활동 등을 꼽을 수 있다. 사회기능과 문제로는 다양한 사회적 기능의 영역과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제로 하는 문제해결학습 속에서 범교과적인 탐구활동을

14) 노용, 전계서, p 105

15) 한국교육과정학회, 전계서, p 407

전개하도록 구성한다. 16)

학습내용 조직방식에 따른 유형으로는 열린 교육에서 통합 교육과정 모형으로 과목 분리형, 과목 연합형, 학문 초월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과목 분리형은 단위 수업시간에 다루는 수업내용이 하나의 과목이거나, 둘이라 하더라도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단위시간에 하나의 과목을 가르치되 해당 과목의 여러 활동을 동시에 개설하여 학습자가 활동을 선택하여 학습하는 단일 과목 복수활동이나 단위 수업시간에 여러 학과를 한꺼번에 개설하여 학습자가 학습순서와 속도를 스스로 선택 조절하게 되는 복수 교과병행수업을 통해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과목 연합형은 단위수업시간에 두 개 이상의 과목 내용이 학습자의 경험 내에서 서로 의미 있게 관련될 수 있도록 여러 교과내용을 제재, 주제, 기능 등에서 공통점을 찾아 가르치는 것이다. 수업방식으로는 동일주제 및 제재 연속수업, 핵심 과목중심 타 학과 제재 이용수업, 제재중심 학과 병합수업, 주제중심 학과 병합수업, 주제중심 학과 통합수업, 능력중심 학과 병합수업이 있다.

셋째, 학과 초월 형 수업 조직은 기능적 통합과 마찬가지로 교과를 초월하여 학습자들이 탐구하고 싶은 문제를 마음대로 정하여 학습해가는 방식이다. 이는 정규 수업보다는 학교 재량학습이나 가정 학습 등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 될 수 있는 방법이다. 17)

16) 한국교육과정학회 . 전게서, p 405

17) 노용, 전게서, p 105

3) 통합교육과정의 유형

통합교육에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는데, 교육내용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학습자가 가지게 되는 경험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뉜다. 이번 장에서는 교육과정 통합에 있어서 대표적인 학자들의 접근 방법과 유형들은 알아보았다.

① 잉 그램 (Ingram) 의 유형

잉그램의 교과 통합의 접근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진다. 구조적 접근과 기능적 접근으로 이 두 가지 유형은 학습과정에서 지식의 역할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첫째, 구조적 접근은 교사중심의 통합이며, 둘째, 기능적 접근은 학습자 중심의 통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잉그램이 제안하는 분류표¹⁸⁾를 살펴보면

<표 1-3> J.B.Ingram 의 통합교육과정의 유형

교과 통합	구조적 접근	양적 접근	합산적 통합, 기여적 통합
		질적 접근	융합적 통합, 종합적 통합
	기능적 접근	내재적 접근	필요와 흥미에 의한 통합 활동에 의한 통합, 탐구에 의한 통합, 경험에 의한 통합
		외재적 접근	귀납적 (문제 중심) 통합 연역적 (목적론적) 통합

잉 그램의 유형 중 구조적 접근은 교과나 학문의 논리적, 인식론적 체계가 통합의 핵심으로 이루어지고, 지식의 구조를 재조직 하므로 ,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으로 세분화 된다. 양적 접근은 약한 통합, 질적 접근은 강한 통합으로

18) 이영만, 전계서, P 94

구분이 되는데, 합산적 통합 → 기여적 통합 → 융합적 통합 → 종합적 통합
으로 갈수록 통합이 더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합산적 통합은 기본적인 통합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역사 안에서 세계사, 한국사 등의 구분을 합하여 공통명칭 만들어서 하나의 상호 연결을 하여 광범위한 과목을 합하여 가르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기여적 통합은 두 가지의 교과에 기여할 수 있게, 교재의 목차를 재배치하여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서 합산적 통합보다 더 세밀하게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융합적 통합은 두 가지의 교과서에 중복되는 내용, 원리 등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공통적인 관심사에 맞춰서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는 여러 영역을 포괄적으로 혼합시켜 두 개념을 탐구하여 유사성을 찾는 것이다. 종합적 통합은 융합적 통합과 달리 공통적인 관심 영역에서 벗어난다. 종합통합은 하나의 관점에서 지식 전체를 관찰 하는 것 보다는 서로 다른 양식들을 모두 탐색하여 현상에 대한 발견 양식들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보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교육과정을 묶거나, 중복되는 개념에서 여러 교과서들을 빌려 오므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기능적 접근은 경험적 접근을 의미하는데, 이는 학습자가 직접 경험을 한 지식으로 통해서 통합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 접근에서도 두 가지의 접근으로 구분되는데, 내재적 접근, 외재적 접근으로 분류된다. 내재적 접근으로 학습자가 동기와 흥미를 중시하는 반면에 외재적 접근은 학습자가 실 생활하는 다양한 공간, 학교, 사회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재적 접근의 하위 유형으로 필요와 흥미에 의한 통합, 활동에 의한 통합, 탐구에 의한 통합, 경험에 의한 통합은 제시하는데, 이는 학습자의 학습행동 중 서로 다른 측면에 초점을 두거나 강조하는 점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외재적 접근은 통합의 사회적 원천을 중시하며, 사회적 요구를 학교 교육과

정에 반영할 것을 강조하여 귀납적 접근과 연역적 접근의 유형을 나뉜다.

② 제이콥스 (Jacobs) 의 유형

제이콥스는 통합정도에 따라 교육과정을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학문기초의 설계 모형은 기초가 되는 학문을 구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하여 수업시간표에 분리되어 등장하는 교과들을 중시하는데, 통합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그 자체를 회피한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익숙한 모형이다. 학생들은 단순히 배정된 시간에서 교과에 제시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므로 학교 밖에 실제 생활에는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학문병렬의 설계 모형은 교육과정을 병렬 형식을 제시 하는 모형으로 교사가 제시하는 수업과 다른 교과에서의 동일한 영역에 대한 수업과 일치하게 계열화한다. 즉 학습내용은 변화하지 않고, 내용에서 제시되는 순서만 바뀐다. 이모형은 교사들 간에 교류도 있어야 하고, 교과들 간에 체계적인 통합이 이루어 져야만 할 수 있다.

셋째, 다 학문의 모형은 한 가지의 주제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탐구하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교과들을 하나의 형식적 단원으로 운영해서 함께 묶는 것을 말한다. 허나 이 과정에서는 수업시간표를 변화시켜하는 것으로 교육과정 설계, 내용의 개정을 위한 계획 , 교사의 연수 등 다 방면으로 고려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

넷째, 간학문 단원의 설계 모형은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에 모든 교과들을 주기적인 학습단원이나 강좌에 신중하게 결합하여, 종합적인 인식론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과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어 학습활동에 자극하고 동기를 유발시킨다. 단 학생이 자극을 받기까지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노력과 변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통합 일 설계모형은 전일제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흥미와 관심사에 초점을 두고 교실 생활을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미국에서 취학 전에 프로그램과 유치원 프로그램으로 혼하게 볼 수 있다. 이때는 이미 짜여진 수업 시간표가 없어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학생들의 필요를 중심으로 계획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완전 프로그램 설계 모형은 강한 통합으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간학문적 통합모형으로 니일 (A,S Niell) 의 서머힐 학교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일상생활 = 학교생활의 의미이기 때문에 완전히 통합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이콥스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통합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에 있어서 보다 관심과 흥미를 요구하는 것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교육과정으로 인해 변화해 가는 상황에서 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3. 포가티 (Fogarty) 의 유형

포가티(Fogarty)는 통합교육과정에서 10가지의 분류를 통해서 보다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크게 통합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단일 교과 내의 유형, 여러 교과 간의 연계를 통한 유형, 학습자 내부 및 학습자 간의 연계를 통한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 분류 안에서 또 세분화하여서 구분했는데, 단일 교과 내의 유형에는 단절형, 연결형, 동심원형이 제시된다. 여러 교과 간의 통합은 계열형, 공유형, 거미줄형, 실로펜형, 통합형으로 제시된다. 거미줄 형은 다른 말로는 주제중심통합이라고 제시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학습활동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내의 통합에는 몰입형, 네트워크형으로 구분된다. 제목에서도 제시되듯이 단일 교과내의 유형에는 각 학문에서 뚜렷하게 분리되는 것으로 교과간의 통합적 수업을 위한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학문 안에서 세분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러 교과 간의 통합은 학교에서 제시되는 교과를 다방면으로 통합하여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학교에서 제시하는 교육이외에 실생활에서도 사용가능한 교육방침이 큰 틀이다. 몰입형은 학생들이 집중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 보다 더 집중하여서 학문에 몰두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표 2-1> 포가티(Fogarty) 의 교육과정 통합 방법

단일교과 내에서 통합			여러 교과간의 걸친 통합					학습자들 간의 통합	
단절형	연결형	동심원형	계열형	공유형	거미줄형	실로펜형	통합형	몰입형	네트워크형

(1) 단절형 (fragmented)

전통적인 교육과정은 독립되어 있는 개별적인 교과들을 강조하는데, 국어, 수학, 과학, 예술, 사회는 4개의 주요한 학문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 분류는 표준적인 교육과정인데, 각 교과를 엄격하게 구분해 두고 있다. 따라서 분야가 다른 교과들 간의 통합적 수업을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다.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세분화된 학문의 길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자신의 교과의 우선성을 쉽게 길러 낸다. 이 단절 형은 유사한 개념을 연관시키거나, 통합하는 일을 학습자가 스스로 해야만 한다. 또 중복되는 개념, 기술, 태도가 학습자에게 제시되지 않으며, 학습이 전이는 발생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학문 중심의 모형에서는 학생들이 숙제에 대한 부담이 크게 되어 쉽게 과중한 학습량으로 부과되게 된다. 이모형은 가르치고, 조언하고, 지도하고, 협력하기 위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세분화된 학문의 길에 있는 대학 단계의 학생들에게 가장 유용하다.

(2) 연관형 (connected)

이 모형에서도 주요 과목 영역들은 분리되어 있지만, 개별 교과영역에서 주제와 개념, 기능들을 관련된 다른 주제와 개념, 기능들과 결합시킨다. 즉 학생들이 관련성을 저절로 이해 할 것이라는 추측하기보다는 교과 내에서 교육과정을 정교하게 관련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학생에게 두 단원을 공부하면서 유사성을 찾고, 명백한 내적 관계를 찾을 수 있다. 학습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개념을 관련지으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면 특정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가 생각이 뻗어나가게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학생들이 관련성을 찾아서 넓게 조감 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연관형은 통합을 하고자하는 초기단계로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연관 짓기 형식으로 교과내의 관념들을 연관 짓고, 익숙해질 때 교과간이 더욱 협

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동심원형 (nested)

이 모형은 각 교과 영역 안에서 교사가 사회적 기능, 사고기능, 특정한 내용에 관련된 기능 등의 여러 개의 기능을 동시에 기르고자 한다.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다양한 목표들을 구조화하는 형식으로 계획이 요구된다. 학습내용에 사고 기능과 협동적 기능을 도시에 다루려는 교사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능숙한 교사들이 이용하게 된다.

한 명의 교사가 폭 넓은 교육과정의 통합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동심원형은 여러 가지 학습 목표를 단일한 수업에서 동심원화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혼동을 시킬 우려가 있다. 이모형의 시기는 수업 내용에 사고 기능과 협동적 기능을 붙여 넣으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세 가지 영역에서 특정한 기능들을 동심원화 함으로써 구조화된 활동을 통해 개념과 태도를 쉽게 통할 할 수 있다.

(4) 계열형 (sequenced)

여러 교과에서 비슷한 단원을 다룰 때 여러 교과에서 다루는 주제의 순서를 재배열함으로써 비슷한 단원들을 이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두 개의 교과서가 계열화되면, 두 교과의 내용이 동등하게 가르쳐질 수 있다. 중학교 수준에서 수학에서의 주식시장에 대한 공부와 역사에서의 불황기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합칠 수 있다. 이는 관련된 주제들이 역사적 사실이나 수학에 관련된 개념들로 연구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모형은 여러 교과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관련지어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학생은 학습내용을 습득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의 주제를 여러 관점에서 이해 할 수 있다. 계열 형에서 교사들은 자율성을 포기해야 된다. 이유는 혼자

마음대로 순서를 정할 수 없으므로 다른 교사와 협력해야 된다.

서로 쉽게 연합될 수 있는 두 개의 교과 영역을 활용하는 통합의 초기 단계에 쓰인다. 교사들에게는 두 가지 영역을 모두 배우는 학생들에게 내용을 더욱더 이해하기 쉽게 병행시키려고 노력 할 것이다.

(5) 공유형 (shared)

폭넓은 교과는 하위교과를 포함하는 상위교과가 된다. 즉, 문학과 역사는 '인문학'으로 묶일 수 있으며, 미술, 음악, 무용, 연극은 '예술'로 묶을 수 있다. 이 안에서 광역 학문 영역 안에서 서로 공유 하고 있는 개념, 기능, 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협동 수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다른 교과 영역에 합치시키기 위해 단순히 단원을 계열화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 이모형의 장점은 네 개의 주요 과목들을 포괄하여 더 충실하게 통합된 모형으로 나아가는 초기 단계로서 비교적 사용하기 쉽다. 두 개의 교과가 합쳐지면서 중복되는 내용을 위한 개념의 심화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다. 단 두 개의 교과가 합쳐지다 보니 모형을 개발하는 필요한 계획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시간이외에도 유연성과 타협이 필수적인 요소로 두 교사가 협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교육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개념을 찾아내기 위해선 심층적인 대화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모형은 교과들이 인문학이나 실용 예술등과 같이 폭넓은 분과로 분산될 때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

(6) 거미줄형 (webbed)

거미줄 형은 주제 중심으로 교과를 통합하는 접근방식을 의미한다. 여러 교과에서 주제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 되는데 구성된 팀이 통합된 주제로 선정하여, 흐름도를 만드는 내용을 통합을 위한 학습내용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통상 이 경우에 사용되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표 2-2> 거미줄형의 학습내용 선정 요소

개념	자유, 협동, 도전, 갈등, 발견, 문화, 변화, 논쟁과 증거, 보존,
토픽	개인, 사회, 지역사회, 상호관계, 세계전쟁, 태평양 연안, 유태감
문제	인질, 재활용, 학교기금, 혁명, 가뭄과 홍수, 공해, 에너지 위기

통합학습을 위한 주제는 좋은 렌즈와 같다 볼 수 있다. 렌즈의 역할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여러 영역에 걸쳐 관련성을 가지며, 근본복인 패턴은 밝혀주고, 유사성과 차이점을 드러내며 학생들에게도 어울린다.

이 거미줄형의 장점으로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하면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학습동기를 환기시킬 수 있다. 또한 이모형은 모든 영역을 주제로 조직하기 위한 교과간의 공동 작업으로 팀웍 계획을 촉진시킨다. 교사에게는 경험 여부에 따라서 이해 수준이 달라진다. 이모형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과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이해하기 쉽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모형은 광범위한 범위 때문에 주제를 선정하는데 난점이 있다. 어떤 경우에 주제가 너무 피상적이거나 인위적이어서 조잡한 학습단원을 형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각 교과의 고유한 논리적이고 필수적 계열과 영역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다.

이 거미줄형은 본 논문의 중심이 되는 주제중심적인 형태에서 시작되는데, 교과목을 맞추다 보면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접근 방식이다. 따라서 교사는 주제를 충분히 탐구하고 탐색하여 선정할 수 있고, 주제의 질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광범위한 계획과 여러 분과간의 협력, 특정한 교과 영역이 요구된다. 이 모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계획이 요구되므로, 교육과정의 운영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7) 실로펜 형 (threaded model)

이 모형은 사고기능, 학습기능, 사회적 기능, 다중 지능, 기술공학 등은 모든 교과를 관통하는 학습하는 방식이다. 모든 교과내용의 핵심을 가로지르는 메타교육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메타교육과정이란 개념에 관련되어 있다. 교과내용을 뛰어넘는 사고와 학습의 기능과 전략에 대해 알고 통제하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메타인지를 강조하고,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의식함으로 전이가 쉽게 일어난다. 이는 각 교과가 순수하게 남아 있고, 학생들이 사고 능력을 생활 기능으로 전이시켜 주는 강력한 능력을 얻는다. 하지만 이모형은 혼자보다는 '또 하나의 교육과정'이 적절하게 덧붙여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교과 내용의 내외적인 관련은 강조되지 않지만, 내용에 관해 메타교육과정을 실로 꿰매기 위해서 교사는 기술이나 전략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래야지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에 대해서 거부감과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실로펜형은 교과의 우선순위를 바꾸기를 꺼려하는 교육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교과 내용은 그대로 두고 사고, 협력, 다중 지능 등을 교과내용에 통합하게 함으로 실행 가능한 모형이다.

(8) 통합형 (integrated)

통합형은 공유 형과 유사한 간학문적 접근을 취한다. 네 개의 주요 교과들을 각각 교육과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되고, 각 교과에 중복되는 기능, 개념, 태도들을 찾아내어 통합단원을 구성한다. 이모형은 거미줄형의 주제 접근 방식처럼 교과들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덮는 것이 아니다. 공유형 처럼 교과 내용에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통합하는 형식이다. 즉, 여러 교과들 간에 공통점이 있을 때 통합이 가능하다. 이모형은 학습자가 다양한 교과들 간의 내적 관련과 상호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분과간의 이해를 구축하며, 전문

적 지식에 대한 안목도 길러준다. 이상적 학습 환경을 만들 수 있고, 학습자를 위한 이상적 학습환경에 접근하여 학습자에게 내적 학습 동기를 유발시킨다. 그러나 이모형은 실행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모형이다. 통합형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려면 유능한 교사가 있어야 하며, 통합의 중심이 되는 개념, 기능, 태도를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3주 4주 분량의 단원으로 소규모 예비 프로젝트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자발적인 교사들의 간학문적인 팀에서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9) 몰입형 (immersed)

이 모형은 독특하게 대학원 석, 박사 과정처럼 전문적인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완전히 몰두하는 형식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교과 내용을 하나의 미시적인 렌즈를 통해서 학습한다. 통합 모형에서 학습자가 외부의 간섭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가운데 통합이 내부적으로 내재적으로 성취된다. 이 형식은 자기 지향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임무는 종종 학습자의 방식으로부터 취해지기도 한다. 궁극적인 장점으로 학습자의 내부에서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학습자는 관심 있는 분야에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통합적 안목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형의 단점은 지나치게 미성숙하거나 협소한 초점을 지니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린학생들에게 적합하기 보다는 좀 더 성숙한 시점에서 전문적인 분야를 탐구하게 된다면 학습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 줄 가장 유의한 토대를 제공한다. 이 몰입형은 오로지 학습자 내부에서만 일어난다.

(10) 네트워크 형 (networked)

네트워크형은 지속적인 외부의 투입원으로서,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져 온

학생이 외부의 전문 집단으로 정교한 아이디어들을 끊임없이 제공을 받는다. 현재 학생들에게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탐색할 때 학습자는 네트워크에 큰 의존을 하게 된다.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라는 렌즈를 통해 걸러내야만 하는 일차적인 정보를 원천으로 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사용으로 필요에 맞는 다차원적인 투입 양식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이모형의 장점으로 학습자가 주가 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학습에 변화하는 정보, 기능, 개념 등으로부터 자극을 받는다. 이모형에서는 하나의 아이디어에 주제를 벗어나게 되어 부수적인 아이디어 빠지기 쉽다. 또한 관심 분야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되면서 집중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 네트워크형은 동기화된 학습자에게 제시하기에 적절하다고 본다. 교사는 학습자의 안목을 확대하거나 필요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모형을 사용한다.

Ⅲ. 미술교육에서 통합교육

1. 미술교과와 역사교과의 교육과정 분석

1) 미술교과의 교육과정

①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적

에플랜드 (E.Fland)는 미술교육을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 아래 조사하고 표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인지적으로 미술교육을 제안한다고 보았다. 또한 미술은 사회이슈에 대한 생각과 이해를 나타내기도 하며, 작품에 제작배경과 사회적 관련성을 담고 있어서 미술 감상 과정에서 사회나 역사에 관련되어 학습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술수업을 삶과 연계성 및 다른 교과와의 관련을 강조하여,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방면으로 접근하는 수업을 제시한다. 그는 학생들이 미술교육에 대해서 삶에 대한 관심과 습득한 지식들로 이미지와 형태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복잡한 인지적 연결 고리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는 미술교육으로 문제해결을 여러 방법으로 모색할 수 있으며, 습득된 지식은 다른 지식으로 서로 연결을 맺어가며 학습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미술교육은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요구에 부응한다. 이 사회에 미술이라는 교육이 인간의 삶과 분리된 학문이 아닌, 학생들의 역동하는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 생명활동의 하나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의 생각이나 느낌을 통해서 조형 활동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미술교육의 최근 선행연구에서는 첫째, 사물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 본질을 일깨우는 것이고, 둘째, 심화된 미적체험으로 대상을 새롭게 표현하고 소통하면서 지식과 세계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게 하는 것, 셋째, 조형 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온전한 인간 형성에 기여하는 것, 마지막 자신의 존재를 일깨워 개성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과 창의성을 개발하는 것을 들고 있다. 학생들이 체험하게 되는 미술교육은 미적 앎(aesthetic knowing = 예술체험)을 통해 인간과 세계의 진실을 깨달아 가는 삶의 한 방식으로서 존재하며, ‘생활세계에서 존재의 본질, 즉 의미를 발견하고 형성하며 인격화 해 나가는데’ 미술교육의 목적이 있다. 19)

학생들은 미술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있다. 또한 우리 내면의 자아의 힘을 활성화하여 정서 치유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다른 연구에서 제시된다.

학교에서 미술교육은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학생의 미적 체험을 확장한다.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함으로 자신과 사물을 이해하고, 미적 감수성과 자기 학습력, 창의적 조형표현력과 비평능력을 육성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제시되는 교육은 이론적 지식과 실기능력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 교육과정에는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 학습의욕이나 즐거움 등의 태도를 반영하므로 문제해결력과 정서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능력 배양에 주력하는 시점이 있다.

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미술교육은 미술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미술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 연결 고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술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 문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다.”라고 제시 하였다.

제 7차 미술교육의 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

19) 김성숙 외 8명,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2009, p 18

첫째, 자신과 주변 세계의 대한 미적 감수성을 기른다.

둘째,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넷째, 미술을 생활화하며 미술 문화를 애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 내용은 중학교 단계에서 갖는 목표로 중학교 수준에 준수하여 운영하고, 동시에 초등학교 단계에서 익힌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 태도를 이용해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는 체험의 단계에서는 대상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발견하여, 실생활에 활용 방안을 탐색하고, 표현에서는 발상력을 북돋워 주제의 특징을 살려서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창의적인 표현을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 감상에서는 상대방의 작품과 미술품을 관찰하는 흥미를 유지하고, 시대와 양식에 따른 미술품들에 존중하고 이해, 보존하고자 한다.

② 미술교육 교육과정의 내용

미술에서 교육과정은 다른 교과와는 달리 ‘지식’에 있어서 배우기보다는 주로 표현하고 감상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미술이 다른 교육에 비해 지식을 전달하는데 목적보다는 학생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시각적 형태로 만들어 내는 표현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른 국가 교육의 방향은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잘 나타내고 있고, 교육 내용의 구성도 이러한 기본 방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새로운 미술교육과정에서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회, 문화적 변화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맞추어 필요한 개정의 기본방향은 ‘미적 인식 능력의 체계적 육성’, ‘시각 문화 학습의 중요성 강조’, ‘교육과정의 명료화’, ‘미술교과 내의 통합적 경험의 수용’ 으로 제시하였다. 21)

20)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2011,

21)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미술)』, 교육과학기술부, 2009. P 205

<표 3-1> 미술 교육과정 내용 체계

영역	중학교 (1~ 3학년 군)
체 험	· 지각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과 자신을 이해하고 조화를 발견하기
	· 소통 시각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표 현	· 주제표현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표현하기
	· 표현방법 표현 방법과 매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계획을 세워 표현하기
	· 조형요소와 원리 조형 요소와 원리의 시각적 효과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감 상	· 미술사 미술의 변천 과정과 가치를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 미술 비평 미술 비평 활동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하기

현재 교육과정이 2011년 8월에 수정되어서 발표되었다. 미적체험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체험으로 지각, 소통으로 세분화 하였다. 전 교육과정에서는 자연미와 조형미를 이해하고, 미술과 생활의 관계를 이해하는 기능으로 생활에서 미술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지금의 소통 부분에서는 미술을 사회적인 가치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미술품을 제작하고 관찰하여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표현영역도 개정 전에는 주제표현, 표현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표현과정에 총 네 가지로 분류 한다. 허나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주제표현, 표현방법, 조형요소와 원리로 구분하는데 주제 표현에 있어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표현하는 것으로 새롭고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를 설정하고, 주제의 특징, 의도, 목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형식을 갖고 있다. 주제가 있는 표현에서도 주제의 특징을 잘 살펴봄

으로 창의적인 표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표현방법에는 다양한 표현 방법과 매체를 이용해서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계획을 잡고 표현하고자 한다. 표현방법과 과정을 학생 스스로가 계획하고 수행하면서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제시되는 작품에 대해서 토론하고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형의 요소와 원리에서는 기초가 되는 조형의 형태와 원리를 습득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주변의 조형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형의 원리는 학생들에게 시각적인 효과와 창의적인 활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감상에서도 미술사와 미술 비평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미술의 변천과정과 가치를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미술 비평 활동을 통해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판단하고자 한다. 이 미술사 부분에서는 다양한 문화권 미술의 시대별 표현 양식, 미술사조 배경 요인 등을 조사하고 미술의 변천과정을 통해 미술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한국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 역사에서 파생되었던 문화재 등을 살펴보면서 한 층 역사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표 3-2> 미술교육 교육과정 전 (2009), 후 (2011, 08)

미술교육과정 변경 전		미술교육과정 변경 후	
미적 체험	- 자연 환경 - 시각문화환경	체 험	- 지각 - 소통
표 현	- 주제 표현 - 조형요소와 원리 - 표현과정	표 현	- 주제 표현방법 - 표현방법 - 조형요소와 원리
감 상	- 미술 작품 - 미술 문화	감 상	- 미술사 - 미술비평

교육과정이 변화해가면서 교사는 그 현 교육과정에 맞춰서 지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2011년 8월 달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 교사가 전에 갖고 있던 교육과정과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다. 혁신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미술교육을 개선하고자 함이라고 보고 있다.

변경된 교육과정은 감상에서 미술사, 미술 비평으로 한 교과로만 이루어지 보다는 역사라는 과목으로 통합을 시킨다면 미술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는 맥락에서 미술품에 대한 이해는 역사를 배경을 알고, 그 시대의 특징을 알게 된다면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미술품을 관찰 할 수 있다.

미술교육과정은 학교 미술교육의 중요 핵심이다. 그것이 개선되는 것은 미술교육 그 자체를 새롭게 하고자 함에 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예술 교육은 현대화, 세계화 될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이 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기르는 중심 교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2) 역사교과의 교육과정

① 역사과 교육과정의 목적

역사는 우리의 민족의 흔적을 나타내주는 소중한 보물 상자와 같은 것이다. 이 보물 상자는 학생들에게 설명해주고 동시에 호기심을 유발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역사는 인간의 삶을 다룬 것으로 학생들에게 그 삶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의미와 관심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역사를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수업중 추체험이나 감정이입과 같은 이해의 과정을 도입한다면, 역사적 사실은 학생들에게 좀 더 생생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²²⁾

'역사' 과목은 현 교육과정에서 한국만 제시하기 보다는 세계와 연결할 수

22) 양호환, 『 역사교육의 이론 』, 책과 함께, 2009, p 227

있는 상호연결 고리를 제공한다. 이는 정치와 문화를 중심으로 역사 학습에 대해 흥미, 창의적 사고력을 높여 준다. 학생 스스로가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접하면서 능동적인 태도로 학습을 하면, 과거에 다양한 해석과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현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 부분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와 세계 역사의 주요 사실과 개념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둘째, 우리나라와 세계 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그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고 역사적 통찰력을 기른다. 셋째, 우리나라와 세계의 역사와 문화 현장을 견학하고 체험함으로써 문화 창조의 능력을 함양하고, 넷째,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탐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섯째, 오늘날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의 역사적 배경과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여, 현대 세계와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확대한다. 마지막 여섯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달라지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23)

그 동안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많이 소홀해 지면서, 역사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현재 학생들에게 역사에 대해서 이해력을 기르게 하기 보다는 주입식으로 년도와 특징만 외우기에 급급하게 만들었다.

역사는 다른 교과에 비해서 학생들이 지루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는 이미 제시된 시대적인 사건들을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동시에 그 배경이 되는 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역사교과를 통해서 다른 미술교과를 통합 한다면, 그 시대의 배경이 되는 작품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폭 넓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암기 과목이라는 인식이기 보다는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여, 과거와 현재, 나와 타인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성찰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바라 봐야 할 것이다.

23)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2011, p 74

② 역사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역사를 연대순으로 나열하는 통사적 방법²⁴⁾으로 내용을 조작하는데, 시대순에 따라 중세, 근대, 현대 순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저학년은 먼 과거를 학습하고, 중학교는 연대사의 구조로서 전체적인 발전과정을 정치적 변화중심으로 이해하는 초점을 두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역사는 정치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한다. 이 처럼 연대순에 따라 내용을 배열하는 것이 역사의 성격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구성한다. 역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현재 사회의 뿌리의 연대기를 통해서 이해한다.

역사 교육과정이 많은 세분화로 통해서 학생들에게 한국의 뿌리와 세계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 정치, 외교사에 초점으로 효과적인 학습을 권장한다. 그리고 역사적 사고력을 토대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현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 과목의 내용체계는 다음 <표 3-3> 과 같다.²⁵⁾

24) 통사적 방법은 역사적 사실을 포괄적으로 연대순으로 나열하는 형식이다.

25) 교육과학기술부, 전계서, p 74

<표 3-3>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 내용 체계

구분	영역		내용 요소
근대 이전	한국사 영역	문명의 형성과 고조성의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 - 한반도와 세계 여러 지역의 선사문화 - 세계 여러 지역의 문명의 형성과 발전 -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 고조선 이후 여러 나라의 성장
		삼국의 성립과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 - 백제의 건국과 발전 - 신라의 건국과 발전 - 가야 연맹의 성립과 발전 - 삼국과 가야의 대외 교류 및 문화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의 수·당과의 전쟁과 그 의의 - 신라의 삼국 통일과 그 의의 - 통일 신라의 발전과 그 의미 - 통일 신라의 문화적 특징 - 발해의 발전과 문화 - 신라 사회의 동요와 후 삼국의 성립
		고려의 성립과 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그의의 - 통치 체제 정비와 고려의 대외관계 - 무신 정권과 농민·천민의 봉기 - 고려의 대몽항쟁과 반원자주화 노력 - 고려 시대 문화의 특징과 그 변화
		조선의 성립과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건국과 통치 체제의 정비 - 민족문화의 발달 - 사림 세력의 성장, 배경, 과정, 의미 - 양란의 배경과 극복 노력
		조선사회의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후기 정치 운영의 변화 - 사회 개혁 방안의 내용과 그 의미 - 문화 변동의 배경과 양상 - 세도 정치 시기 농민 봉기의 사례와 의미

근대 전 후 의 과정으로 중, 근대 전만 내용을 작성 하였는데, 이는 본인의 연구 중에서 조선시대 배경으로 설계 하여서 근대 전만 작성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역사 흐름을 볼 수 있는 연대기 과정으로 각 시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그 시대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

다. 고조선에서 조선시대의 후기까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뚜렷하여, 사건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는 내용으로 옛 시대가 살아있던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학습을 하기에는 구체적으로 많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상세하게 구분하는 것은 좋으나, 현대관점에서 그 시대의 관점을 이해하기에는 많은 정보가 때로는 학습에 불편을 줄 수도 있다. 교육과정의 변화가 그 내용을 대신하고 있다.

<표 3-4> 역사교육 교육과정 전 (2007), 후 (2011, 08)

역사 교육과정 변경 전		역사 교육과정 변경 후	
8학년	9학년	근대 전	근대 후
㉠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 삼국의 성립과 발전 ㉢ 통일신라와 발해 ㉣ 고려의 성립과 발전 ㉤ 고려 사회의 변천 ㉥ 조선의 성립과 발전	㉦ 조선 사회의 변동 ㉧ 근대국가 수립 운동 ㉨ 대한민국의 발전	㉠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 삼국의 성립과 발전 ㉢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 고려의 성립과 변천 ㉤ 조선의 성립과 발전 ㉥ 조선의 변동	㉦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국권 수호 운동 ㉧ 민족운동의 전개 ㉨ 대한민국의 발전

큰 특징으로 변화하기 보다는 세부화 하는 과정을 거친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역사에 대한 뿌리를 알려 주고자 하는 것이다.

역사를 학문적 성격과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역사학습지도에 교사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바탕을 둔 방법적 원리를 습득해야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고 본다.

2. 미술교과와 역사교과의 통합적 접근

1) 미술교과에 있어 통합교육의 필요성 및 유형

중학교에서 미술교육은 적성을 발견하고 남다른 재능을 찾아 자신의 소질과 특기를 키워나가는 시기로, 초등학교 때 감성위주로 표현 하던 때와는 다르다. 따라서 조형사고의 개념, 미술사적 접근 혹은 조형요소와 표현활동의 심화과정을 통해 통합적·총체적 미술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미술은 획일적인 내용에서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표현능력을 증진 시킨다.

미술을 배우면서 창의력과 표현력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관찰하는 시각에서는 창의력에 정의가 추상적일 수 있다. 그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법의 전수가 아니라 미적 경험을 유도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술’이라는 과목을 제한된 교과에만 치중하지 말고, 다른 과목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는 통합적인 미술교육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에프랜드는 미술교육에서 미술작품을 통해서 통합을 제시하였는데 “ 미술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 작품이 생성된 배경과 관련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미술과 다른 교과와 관련성을 갖고 상이한 영역의 지식들이 서로 겹쳐지는 곳으로 학생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때 의의가 있다.”²⁶⁾ 는 것을 제시 하였다.

에플랜드는 미술작품은 미술사적인 면 외에 역사라는 관점, 과학, 국어 등 각 학문에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복잡한 요소를 한 분야에서만 찾으려

26) 김홍숙, 『Efland의 미술교육 사상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2008, p 62

하기보다는 지식이라는 큰 주제에서 학습을 경험하게 된다면 폭 넓은 상상력과, 감각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로웬펠드 (V. Lowenfeld)²⁷⁾는 학습자는 따로따로 떨어진 독립된 주제 영역 안에서는 성장 할 수 없고,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분리되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험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²⁸⁾

두 학자는, 미술교육에서 여러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과, 학생들이 다른 과목에서 습득한 지식으로 지식과 지식을 연결해주는 선지식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오랜 관습처럼 운영된 교육과정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생동감 있는 미술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스스로가 근원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깨우치는 내용들로 수렴하고 보완 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의 내면세계에 둘러싼 환경을 다양한 모습으로 접하여, 미술을 폭 넓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미술교육에서 통합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김춘일은 미술교육에서의 통합을 미술교육 또는 미술과 교육 안에서의 내적 통합, 타 교육·타 교과와의 통합, 생활과의 통합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술과 교육 안에서의 내적 통합은 미술장르에서 내용, 형식, 활동의 기준을 한단원이나, 주제에 일관성 있게 통합적으로 전개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내적 통합이란 어떤 주제에 의해 지각하고, 이해하고, 표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차시 활동이 각기 한 주제에 대한 근본적인 미적 지각, 미적 표현, 미적 질서 및 원리의 이해라는 일관된 기본 목표에 의해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개의 차시 활동이 모두 그 주제에 해당하는 미적 지각의 면, 미적표

27) 로웬펠드는 아동의 조형 활동에 관한 연구로, 창조주의 미술교육의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여 세계의 미술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아동의 조형 활동에서 보이는 '창조성과 정신의 성장 발달, 그리고 개인차에 착목하여 실천을 바탕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이론을 체계화 했다.

28) 차명준, 「미술 감상 교육을 통한 통합지도 방안 연구: 국사교과와 미술교과의 통합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미술교육전공, p 38

현의 면에서 통합하면서 미적원리의 이해라는 면을 설명하는 것이다.

둘째 타 교육·타 교과와의 통합은 교과간의 통합을 말한다. 즉 타 교과와 관련이 깊은 경험과 지식과 탐구 방식들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개방적으로 접근하여 통합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단원이나 주제의 선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통합하자는 의도가 숨어있다. 학습자의 경험을 통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습자의 다양한 교과에 대한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해결 할 수 있다.

셋째, 생활과의 통합으로 미가 현대사회에서 생활의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크게 작용한다. 이는 미의 존재가 생활세계 전반을 교육장으로 넓히는 일이다. 가까운 미술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미적 교육으로 미술교육의 폭넓은 체험과 생활의 경험하여 생활을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합류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상의 미술교육에서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살펴 본 결과 미적 경험의 기대를 심미성, 창의성, 조형성을 기르고 본 교과 외에도 타 교과에서도 학습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2) 미술교과와 역사교과의 통합관련성

사회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교과목은 없다.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 세계화시대로 보고 모든 교과목은 어느 정도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학교에서 기본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는 인간의 육성을 목표로 삼는다고 본다. 이 목표에서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은 공통적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는 인간을 만들자는 것에 방향을 제시한다.

미술 역할은 환경을 '새롭게 보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데 있다. 미술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포함한 현실을, 새롭게 보고 끊임없이 고쳐 나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또한 미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시각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미술교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균형 잡힌 교육이라 할 수 없다.

학교라는 곳에서 미술의 역할은 사회적, 도덕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다. 미술교육에서 미술에 대한 인식을 재현으로서의 미술, 창의적 자아표현으로서의 미술, 학문으로서의 미술, 문화적 소통으로서의 미술로 정리된다.

미술은 작품을 통해서 사회 혹은 문화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우리는 미술품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사회의 모습과 다른 사회 혹은 다른 시대,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미술품은 그런 내용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학생들은 스스로가 무엇을 보고, 느끼며 아는지를 통합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에서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가시적 형식을 지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예시 작품에서 가시적 형식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안내가 필요하다.

역사교육은 내적인 가치로 학생들에게 세계관 혹은 역사인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의 문제에 기원과 발달에 대한 지식, 과거와 현재 사회에 대한 비교인식,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 있는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타

민족과 구별되는 고유의 유산이나 역사상을 통해 민족의 동질감, 민족적 주체성을 확립 할 수 있기 때문에 , 즉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이해하려 한다면 그 시대의 문화적, 사회적, 과학적 산물과 미술표현 양식을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한 시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체적인 통합이 문화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것 중 미술사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미술품을 대한 지식을 갖고, 감상자에게는 미술품을 인지하고 지각하며, 더 나아가 미술품을 다양한 시각에서 관찰하는 안목을 길러준다. 역사와 미술은 오랜 세월 함께 존재해 왔다. 인간들의 삶이 모여서 역사를 만들었고, 그 역사 속에서 삶의 표현이 미술이기 때문이다.

사운더스 (Saunders)는 시각적이고 조형적인 감각을 지닌 미술활동을 통하여 다른 교과 내용에서 교육하고자 하는 주요개념들을 일부 통합하여 지도함으로써 주개념을 보다 풍성하게 교수 할 수 있는 창의력 계발 및 풍부한 감상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고 하였다. 29)

미술을 통합적 접근으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미술을 통합하여 수업하게 된다면 교수법은 다양해지고, 학생에게 창의력, 상상력은 풍부해진다. 타 교과와의 통합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포괄적인 시각을 키우고, 다 방면으로 사고할 수 있는 감상능력과 학습경험을 학습자가 경험을 통해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역사교과와 연계하여 미술교과를 교육하는 방법을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제한다. 피상적인 상태에서 역사를 설명할 수 없고, 창조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두 교과의 통합은 효율적이지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에게 수업의 흥미와 지식 이해영역을 넓히고, 자기 주도적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두 교과가 갖는 교육적인 목적은 다르나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태도는 문화

29) 김은형, 「미술과 타 교과와의 통합지도에 관한 연구」, 전주 교육대학교 대학원, 2002. p. 8

를 이해하고, 그 문화의 배경과 특징을 이용하여 보다 활동성 있는 수업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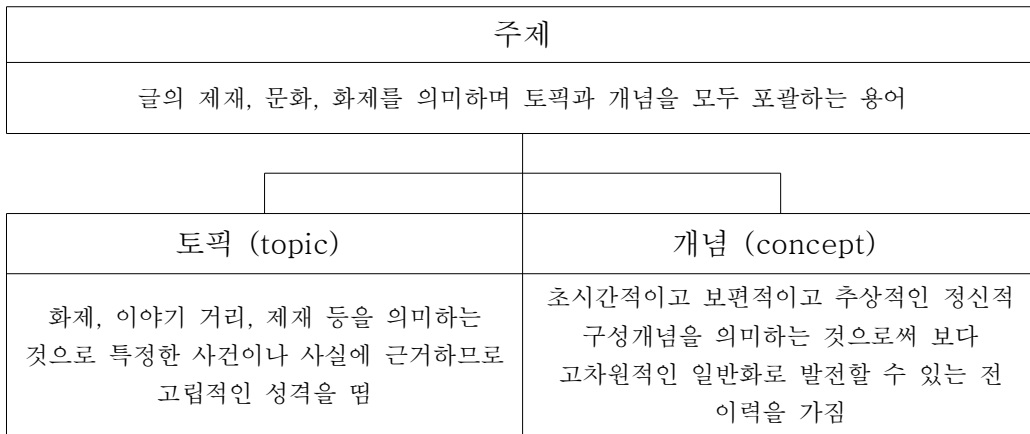
학습자와 교사의 역할이 확실한 구분 보다는 교사는 학습자가 지식에 있어서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수업에 정작 효과만 기대하는 수업이 아닌 자발적으로 학생이 연구하고자 하는 자세를 키우고자 한다.

IV. 주제중심에 의한 미술교과와 역사교과의 관점

1. 주제중심 통합교육의 개념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에서는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과정의 내용이 적절하고, 유용한 통합적 지식을 형성하고, 체계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여러 주제 유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여러 가지 학문을 기초로 하여 통합교육을 구성할 때, 그 핵심이 되는 것으로 개념 또는 주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수업에서 단순히 사실 이해나 기능을 습득하는 위주보다는 핵심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야지만 학습자들은 수업의 이해능력이나 본인이 생각과 일치한 정의를 내릴 것이다. 여기에서 주제라는 말은 두 가지로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토픽(topic)과 개념(concept)으로 제시된다.

<표 4-1> 주제 (theme), 토픽 (topic), 개념 (concept)의 관계도



역사 교과에서 주제나 토픽 학습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토픽은 역사적 사실의 공통점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개념이나 주제일

수도 있다. 역사라는 교과를 주제학습으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능력에 맞고 흥미를 끌 수 있는 것, 역사적 사실이나 해석이 너무 다양하지 않는 것, 적절한 학습을 구할 수 있는 것,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 등이 좋은 주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 할 수 있다. 30)

강충열은 주제중심의 통합과정이란 어떤 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교과의 요구, 학습자의 흥미,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선정하고 조직한다. 학습자 주도의 활동을 통해 학습을 유도함으로써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과정이며 지식 교육 외에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 절차적 학습을 강조하는 과정 중심의 교육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재복은 주제 중심의 접근이란 사회나 자연 현상 또는 생활 경험에서 주제를 잡고 이를 중심으로 탐구 활동을 전개하면서 개념과 원리를 알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어떤 현상이나 사상을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주제 중심 통합교육은 주제는 (Theme) 주제, 제목, 화제를 뜻하는 것으로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환경에서 학습 경험들과 현실에서 제시되는 문제를 교육으로 끌고 들어가 조직하는 것이다. 이 주제는 학생의 흥미와 능력 또는 관심의 문제나 내용들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을 유도함으로써 전인적 인간으로의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주제선택에 있어서 교사는 다양한 주제를 제시 할 수 있다. 주제로 선정 될 수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생들의 공통적인 관심사
- 아동 문학

30) 김한중 지음, 『역사수업의 원리』, 책과 함께, 2008, p 146

- 교과서에서 추출한 토픽들
- 예술 활동: 그림, 조각, 선묘, 에칭, 수채화, 벽화
-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현재의 사건들)
- 특별한 지역 사회 유적지들
- 민족의 문화유산
- 추상적인 개념들
- 선생님의 특별한 지식 또는 관심사

현재 세계에서는 다양한 사건들과 화제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많다. 주제를 위한 다양한 소재들은 방송매체에서 방송된 사건이나 이슈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문화를 탐구하는 방법을 병행 할 수 있으며 추상적인 개념들만 추출하여 다뤄질 수도 있다. 주제 중심의 조직은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학습의 풍부한 기회를 제공되는 것이 이 주제 중심교육에서 중요하다.

유한구는 주제통합 교육과정의 주제 유형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문제 사태 중심의 주제는 현재의 생활 또는 문제 사태를 교과 내용의 매개 없이 직접 주제로 삼는 통합유형이다. 둘째, 일반적 화제 중심의 주제는 현실적으로 당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으나 중요하며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는 논의거리들이다. 셋째, 교과 내용 중심의 주제는 국가에서 정한 교과내용을 재구성한 것에 맞추어야 한다. 넷째,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의 주제는 교과 내용을 재구성할 때에 여러 가지 수준 또는 차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주제의 장점은 개별 교과 모두를 효과적으로 가르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점이다. 31)

이 주제 중심통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중심에서 수업을 운영하는

31) 김진희, 전게서, p 17

방식보다는 학생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 학문적 이고 , 다 차원적 이어서 특별한 경계 같은 것은 없다. 이 개념은 기본으로 하여 몇 일 간, 일주일간, 더 오래 동안으로 확장된 시간대를 유지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적 설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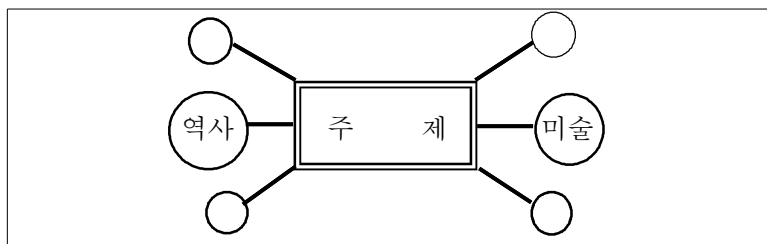
앞에서 제시되었던 포가티의 유형중 거미줄 유형이 주제 중심통합교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한 주제로 두 과목을 연결하여 학생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조사하고, 탐구하면서 스스로 흥미를 찾게 되는 것이다. 학습을 할 때 자발적인 것은 힘들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 중심통합으로 교육을 하게 된다면, 학생이 주가 되는 수업이 제시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거부감보다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미술 수업에서는 개개인의 발달적 평가를 제시하면서 인성과 창의적인 표현 활동이 목표인 수업에서 평가의 성격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본다.

주제에 대해서 학습활동은 학습자끼리의 협동적인 활동으로 사회적인 메시지를 창의적인 표현결과물로 제시 될 수 있다. 학습활동이 진행 된 후에는 학습자 스스로 주제와 학습목표에 대해 이해하고 , 아이디어나 쟁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탐구하였는지 교사는 수업 관찰 표, 동료 및 자기평가 , 표현결과물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2. 주제중심 통합교육의 학습모형

주제 중심 통합교육을 설계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학습 모형이 제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포가티 (Forgarty)의 설계모형 중 거미줄 형 모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포가티 (Forgarty)는 거미줄 형 모형에서 다양한 학습내용들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재구성됨으로써 망원경과 같은 효과를 본다고 제시하였다. 망원경방식은 다양한 학습 내용들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재구성됨으로써 전체를 관망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시야를 제공한다.

<표 4-2> 거미줄형 모형의 개념망



주제 중심 통합교육을 효과적이고 주제적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화된 조직화가 필요하다. 학습모형으로 튜크 (Drake)의 모형과 강충열의 모형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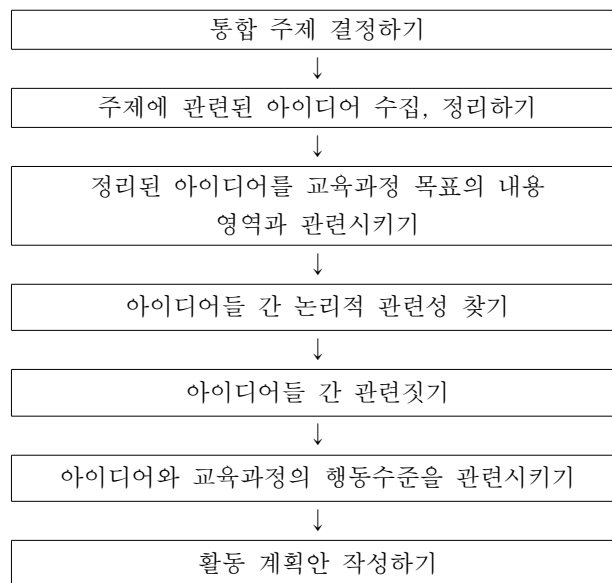
우선 Drake의 모형은 주제 중심 통합교육의 학습 모형을 일곱 단계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통합 주제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두 가지의 방향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데, 교과 학문을 자원으로 하여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할 경우 통합의 주제는 교과 학문 간에 상호 이용되거나 공유되는 개념, 원리, 탐구 방법 등에서 선정한다. 이와는 달리 학습자의 요구나 사회의 필요를 자원으로 하는 통합 단원은 통합의 주제를 곧바로 학습의 필요나 사회의 요구 등에서 선정한

다. 둘째, 주제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단계로 브레인스토밍³²⁾을 통해 수집된 아이디어들을 정리 하여 질문의 형태로 옮겨 놓는다.

셋째는 정리된 아이디어를 교육과정 목표의 내용 영역과 관련시키는 단계로써 다 학문적인 접근에 해당된다. 넷째는 아이디어들 간의 교과별 체계를 관통하는 논리적 관련성이 있는가를 찾는 단계이며, 간학문적 접근에 해당된다. 다섯째는 아이디어들의 교과별 체계를 무시하고 관련짓는 단계로 탈 학문적 접근이 된다. 여섯째는 교과별 체계를 연결하는 아이디어와 교육과정의 행동수준을 관련시키는 단계이다. 마지막 일곱째는 활동 계획안 작성하는 방법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제, 목표, 구성, 교수-학습활동, 교수-학습자료, 평가 방법, 소요 시간, 참고 문헌 등을 기술한다.

Drake의 모형은 다 학문적 접근, 간학문적 접근, 탈 학문적 접근이 제시 되면서 개발 절차에 있어서 세분화 되었고, 동시에 체계적으로 점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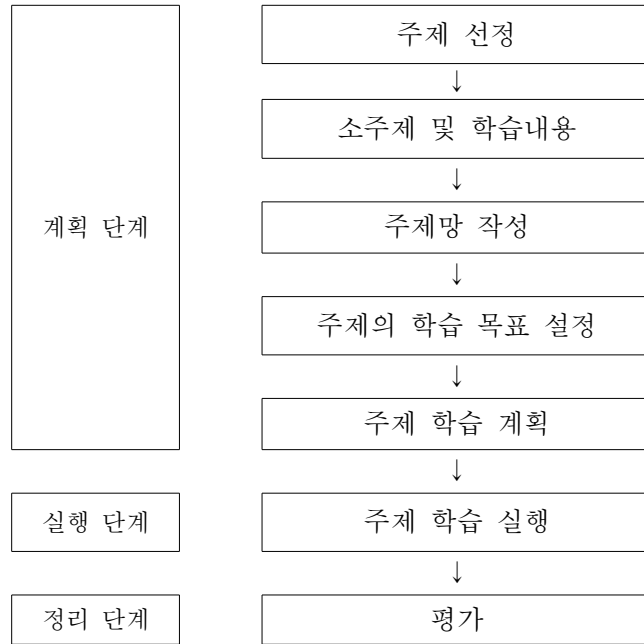
<표 4-3> Drake의 주제 중심 통합 교육과정 모형



32) 브레인스토밍이란 집단토의의 일종으로 특정한 문제나 주제에 대하여 두뇌에서 폭풍이 몰아치듯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가능한 한 많이 산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오스번(A. Osborn)에 의해 제안되었다.

강충렬의 주제 중심 통합교육 학습 모형을 살펴보게 되면, ‘ 도입→전개→정리’ 라는 틀에 맞추어서 Drake의 모형과 같이 총 일곱 단계로 나누어서 학습 할 수 있다.

<표4-4> 강충렬의 주제 중심 통합교육 학습 모형



도입 부분으로 계획을 단계로 주제를 선정하고 , 소주제 및 학습 내용 선정, 주제망 작성, 주제 학습의 목표 설정, 주제 학습 계획 단계로 구분된다, 전개 단계로 주제 학습 실행이 포함되며, 마지막 정리단계에서는 주제 학습 실행이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에서는 평가를 이루는 단계이다. 이모형에서 중심이 되는 단계는 주제 선정, 소주제 및 학습 내용선정, 주제 망 작성, 주제의 학습 목표 설정, 주제 학습 계획으로 도입부분을 다섯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서 계획단계가 강조 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주제 중

심 통합교육의 교육내용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으로 활동하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수업의 단위시간은 40분으로 기본으로 하여 설정하지만 주제 중심 통합교육은 주제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총 시간을 하나의 단위로, 소위 블록을 단위로 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수업에서 제일 중시하는 학습 목표를 제시함에 있어서 처음이 아닌 가운데에 위치하는 점이다. 이는 학습내용에 따라 어떤 목표가 정해지든 그것은 적성과 태도의 발달이라는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목적에 포함되고, '의미 있는 경험의 성장' 으로 과정의 목표로 삼는다.

3. 주제 중심 통합교육의 방안과 모색

1) 개발 방향

이 논문에서 중심이 되는 통합교육 중에서 주제 중심 통합교육을 통해서 다룰 대상 과목은 미술교과와 역사교과이다. 두 교과의 내용이 달라 보여도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글자도 있겠지만 그보다 많은 문화재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다양한 작품들은 삶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는 현재 있는 것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미술사 이해, 아름다운 미술 작품의 감상을 통하여 미적 정서를 함양시킨다. 실제 존재하고 있는 미술 작품은 현재의 삶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을까?

가다머³³⁾ (gadamer, Hans - Georg)에 의하면 인간의 이해란 필연적으로 역사와 결부 되어 있다고 하였다. 즉 이해는 이해하는 사람의 역사적인 상황과 분리해서 생각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미술교과의 통합이 학습자가 쉽게 접하고,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주제를 통한 통합교육으로 대상을 역사과목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집중이수제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중학교 미술교과와 역사교과의 교육과정으로 방향을 제시 하였다. 중학교 과정 중에서 3년이라는 시간동안 한 학년에 집중적으로 수업하여 3년 과정을 축소 시켜서 배우게 된다. 현 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은 교사들은 다양한 시점을 갖고 있다. 집중이수제의 형식의 수업은 많은 학습자에게도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아닌 관심분야 혹은 입시에 맞춘 수업으로 구분 될 수 있다.

미술교과에서는 표현부분으로 학습자들이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33) 가다머는 독일의 철학자, 철학적 해석학체계는 부분적으로 빌헬름 딜타이, 에트문트 후설, 마르틴 하이데거의 개념에서 나왔으며, 20세기 철학·미학·신학·비평 등에 영향을 끼쳤다.

한국화의 표현기법과 컴퓨터의 3D기법을 이용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표현이 아닌 직접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고 익숙한 시각적 효과를 이용하여 학습한다. 역사교과에서는 탐구하는 자세로 가설을 설정하고, 드라마와 같은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상상력을 이끌어 낸다. 또한 역사적인 사건을 직접 접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면 보다 더 학습자는 관심을 갖게 된다.

앞에서 제시되었던 거미줄형 을 통해 연구자는 두 과목을 통합하여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꿈을 기억하노라’ 로 조선초기의 역사적 배경으로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연관을 갖고 탐구 학습의 원리를 이용하여 제시한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지만 그 기억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중학교 수준 정도의 학습자에게는 꿈을 갖고, 상상력이 동원되는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꿈은 유토피아 적인 세계를 갖고,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꿈을 주제로 하고 있는 다양한 작품을 접하면서 미술 교과에서 주제에 따른 표현 기법은 연구 할 수 있게 된다. 역사교과에서는 가설을 설정하여 그 가설을 이용해서 상상하여 추측하는 형식을 조선이라는 시대를 학습자의 중심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두 교과가 갖는 특징을 이용하여, 수업에 적용하여 학습자는 교과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공통적인 주제인 꿈을 이용한 지도를 통해서 미술에서는 주제에 따른 표현과 조선 초기의 대표작품 ‘몽유도원도’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역사에서는 조선 초기의 정치적 흐름과 연대기를 살펴 볼 수 있다.

둘째 ‘우리 동네 네비게이션’ 으로 조선후기의 대동여지도와 연관성을 갖고 역사 교과에서는 개념학습 원리를 이용하여 제시한다. 현대 사회에서 편리해진 제품 중에서 네비게이션이라는 물건을 이용하여 수업에 적용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쉽게 접하는 것으로 3D의 형식으로 가까운 거리도 볼 수 있는 컴퓨터의 기능을 이용하여 미술교과에서 시각디자인과 판화라는 수업을 이용할 수 있다. 표현 방식에서 판화를 이용하는 것은 현재 학습자들에게 직

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변의 사물을 시각적으로 인식하여 작성하고, 관화로 찍어내는 형식을 표현한다. 이 안에서 조선시대의 ‘대동여지도’의 작품으로 참고 하여, 조선시대의 지도의 표현 방식과 김정호의 업적을 살펴 볼 수 있다. 역사 교과에서는 조선 후기의 정치적 연대기를 살펴 볼 수 있다. 지도에 대한 활용도 및 지도를 역사적 탐구 방법으로 이해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 한다.

두 가지의 수업은 조선 초기부터 조선 후기의 순서로 역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연대기 순서로 진행하고, 표현방식을 다양한 방향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학습자에게 표현방식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고, 매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과 창의성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

① ‘꿈을 기억하노라’ - 조선 초기 (안견)

<표 4-5> 주제 중심 통합교육 - ‘꿈을 기억하노라’

주 제 ‘꿈을 기억하노라’	
미술 교과	역사 교과
<p>1. 체험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주일, 한 달간 꿈을 꾸었던 유토피아 세계를 기록 남기기 - 꿈에 관련한 이야기 및 활용한 내용 찾기 <p>2. 시각문화 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시대 초기 역사적 흐름 - 안견과 안평대군의 관계 및 계유정난을 역사적 사건을 읽기 - 안견과 안평대군의 연결된 ‘몽유도원도’에 대해서 토의해보기 <p>3. 작품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토피아 적인 것 표현을 오브제 - 동양화적인 표현 활용으로 풍경을 표현 - 이미 제시된 지도와 비교하고, 새로운 곳 찾기 	<p>1. 문제의 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시대 초기 역사적 흐름을 제시하는 배경, 회화 읽기 <p>2. 가설 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평대군이 계유정난에 희생양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 안평대군과 안견이 만나지 않고, 몽유도원도가 제작 되지 않았다면? <p>3. 자료의 수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초기 왕의 역사적 업적 (세종 ~ 세조까지) <p>4. 자료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참고, 동영상 및 드라마 <p>5. 가설의 검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 스스로 이야기를 꾸미는 형식으로 <몽유도원도> 작품에 인용 <p>6. 개념의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알고, 왕의 업적 기록을 남김

< 표 4-5 >를 살펴보게 되면, ‘꿈을 기억하노라’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초기를 대표하는 안건의 (몽유도원도)를 제시하며, 그 시대의 계유정난에 대해서 알고 자 한다.

우선 미술 과정에서는 주제 중심통합과정의 특징 중 하나인,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꿈을 일주일, 한 달로 일정을 잡아서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직접 작성하도록 한다. 꿈이라면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꿈을 학생들 스스로 해석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제작한다. 둘째로 시각문화 읽기에서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전개한다. 계유정난이라는 사건으로 학생들에게 안평대군과 수양대군의 관계도와 왕의 전개도 역시 알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작품 활동으로 미술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표현활동이 제시된다. 오브제 형식으로 다양한 유토피아 적인 세상을 표현하고, 그 발판이 되는 (몽유도원도)을 배경으로 표현하는 형식이다. 이는 동양화의 표현형식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표현 기법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꿈을 기억하노라’라는 큰 주제에서 조선의 대표작품인 안건의 <몽유도원도>를 알고, 조선 초기 안평대군의 업적과, 조선 초기 특징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사 과목에서는 탐구 학습의 원리와 지도 방식으로 지도 과정 형식에서는 문제의 제기→가설 형성→자료의 수집→자료의 확인→가설의 검증→개념의 도출의 순서로 한다. 탐구학습은 역사적 사실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 학습은 증거의 수집과 해석에 본원적으로 토대하고 있다. 34) 이 과정에서는 학습 동기의 유발과 호기심 유발에 중심을 갖고, 학생이 스스로 발견하고, 확인하는 속에서 생동적이고 효용성이 높다고 본다.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는 가설의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시작한다. 만약이라는 생각으로 상상을 하면서 문제를 풀게 된다면 보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분

34) 최완기, 『역사학습지도의 원리와 실제』, 느티나무, 1997, p 47

과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 것이 통합하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다.

‘꿈을 기억하노라’에서 국사는 조선초기의 역사적 배경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대중 매체로 역사의 외곡이 현재 많은 학생들은 역사에 많은 의문점을 남긴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제공되는 인물의 특징이나 사건은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외곡이 있다. 조선시대의 사건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기 위한 대중 매체로 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까지는 힘이 든다. 하지만 학습자 스스로가 역사의 흐름을 알게 된다면 대중매체의 이야기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소재로만 제공 될 것이다.

조선 초기의 역사적 사건인 계유정난을 통해서 세조의 업적을 알고, 그 시대의 정치적 업적을 알게 된다. 조선 초기의 회화 작품인 ‘몽유도원도’를 통해서 안견과 안평대군의 관계를 살펴 볼 수 있다. 안평대군과 세조의 관계도 알 수 있으므로 학습자는 다양한 시각으로 세조의 업적을 관찰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한 교과서에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조선초기의 큰 사건인 계유정난에만 집중 될 것이다. 그러나 두 교과를 통해서 역사에는 이해와 지식을 습득 하게 되고, 미술에서는 직접 활동하며 교육적으로 학습자는 지식을 이용하여 다른 정보와 통합할 수 있게 된다.

② ‘ 우리 동네 네비게이션 ’ - 조선 후기 (김정호)

<표 4-6> 주제 중심 통합교육 - ‘우리 동네 네비게이션 ’

주제 “ 우리 동네 네비게이션 ”	
미술 과목	역사 과목
<p style="text-align: center;">1. 체험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살고 있는 동네를 다큐멘터리 형식의 사진으로 기록 남기기 - 지도형식의 프로그램 (구글,다음)을 살펴보고, 내용및 형식을 이해하기 <p style="text-align: center;">2. 시각문화 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후기를 기록한 역사 자료 (작품) 이해 - 대동여지도와 네비게이션의 비교를 하고, 그에 맞는 내용을 표로 남기기 <p style="text-align: center;">3. 작품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형식 및 컴퓨터 작업을 통한 모형 제작 - 판화형식으로 동네 지도를 제작 및 홍보 	<p style="text-align: center;">1. 지식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시대 후기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 -대동여지도를 그리게 되는 배경과 김정호의 관점에서 역사이해 <p style="text-align: center;">2. 기능(탐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동여지도에 대한 내용 정리 - 대동여지도의 다른 나라의 지도형식을 역사적 탐구방법으로 이해 <p style="text-align: center;">3. 가치(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도와 비교 - 지도의 활용도에 대해서 알기 -대동여지도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의지

<표 4-5> 안에는 주제 중심으로 한 지도 형식을 살펴보자. 우선 미술교과는 단순히 작품을 완성을 목적을 두지 않는다. 주제 중심 통합교육에서 가장 중심을 두는 부분 중에서 학생의 흥미 거리여야 하는데, 이는 학생들이 주변세계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주제를 갖고 학교까지의 연장선이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배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장선이 되는 소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주변의 환경을 쉽게 접하면서 학생들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핸드폰의 네비게이션의 기능 통해서 나만의 동네 지도를 만들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이 아닌 학생이 스스로 사진을 촬영하고 또한 대동여지도의 제작 형식과 비교가 가능하다. 시각적으로 직접 체험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학생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을 다시 한번 관찰하여 관심을 갖았던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을 발견 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제작 된 역사물과 현재를 대표하는 네비게이션과 비교를 하게 된다. 대동여지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도로 김정호가 직접 다니면서 직접 기록한 것으로 제작하였는데, 현재 와서는 네비게이션이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이 두 형식을 접목 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지도가 개발 될 수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능력에만 의지 하지 않고, 교사의 적극적인 태도도 중요하다.

이미 제작된 구글 지도를 활용하기 보다는 , 학습자 스스로 구글 지도와 활동한 지도를 비교를 한 다음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한다. 비교하지 않고 이미 제공된 지식을 사용하는 것은 흥미를 유발시키기 보다는 상상력에서 제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작품 활동에서는 3D를 이용한 컴퓨터 작업으로 학생들이 직접 건물의 모형과 주변 환경을 직접 꾸며보면서 , 다시 한 번 주변의 상황 및 건물을 상기시킬 수 있다. 컴퓨터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형식의 작품 활동이 제기 될 것이다. 또 대동여지도 형식으로 판화를 제작하여, 직접 대동여지 제

작 과정과 흡사한 형식을 배울 수 있다. 이는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3D형식으로 입체를 배우게 되면, 입체적 건축 형식과 평면도를 제작하는 형식으로 구분 될 것이다.

간단한 놀이에서 시작하여, 그 안에서 개념을 이해하고, 동시에 다른 소재와의 비교를 통해서 학습자는 동시에 이해와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본다.

역사과목에서는 개념학습의 원리로 접근하여 교사가 학생이 학습하기 원하는 개념을 선택하여, 관련 있는 많은 사건들을 열거 한다. 이때 열거 할 때의 특징으로 공통적인 사건 및 공통적인 면을 제시해야 된다. 제시된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공통성을 발견하는 것은 학생들이 직접 발견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학생들이 한 개념을 말로 표현하거나 상징화 할 수 있는 게시물을 만들도록 유도 한다. 역사 과목에서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으로 역사에서 수업의 원리로 접근하는 형식인데, 이는 학생들이 지식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동시에 그 능력을 마지막에서는 실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 한다.

역사 과목에서는 대동여지도의 흐름인 조선후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한다. 이미 조선시대의 전반의 흐름을 인지한 학습자만 가능하기 보다는, 조선후기에 관심과, 한국 역사적 흐름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학습에 있어서 관심과 흥미가 유발 될 것이다.

이 시대적인 배경은 역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흐름을 파악하고, 현재까지의 영향력까지 알 수 있게 된다. 쉽게 접하는 지도와 직접 학습자가 찾고 발견한 지도에 대한 정보습득이 이루어 질 것이다.

대동여지도 외에도 다른 나라의 지도 기제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은 우리의 문화재의 제작 형식을 알게 될 것이다.

2) 교육효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육으로서 미술은 누구나에게 대중화되고, 생활화 되어야 하며 이해하고 감상 할 수 있는 것 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미술교육이 필요하다.

통합교육과정 중 주제중심통합으로 제시된 학습활동을 통해 어떠한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 앞에서 제시된 프로그램은 인위적인 시간대에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나 화제들이 논리적이고 자연스럽게 이해 할 수 있다. 지식을 제공 할 때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드물다고 본다. 수업시간 사이의 벽을 넘나들며 확장시키는 주제 간 연계되는 수업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두 가지 프로그램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미술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미술을 이용해서 효과적인 수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선시대라는 주제를 통해서 역사적인 배경과 회화를 조형적 탐색을 할 수 있다. 역사적인 사건을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며 느낌과 장면을 상상하게 하여 표현 하는 형식을 제공 한다.

둘째. 학습자 스스로가 중심이 된 교육과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흥미, 필요, 능력에 따라 형성 되는 것으로 스스로가 결절하게 하면서 학습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가지도록 격려한다.

수업에 있어서 교육과정은 교사 혼자 제공 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는 조력자의 역할로 학생의 흥미와 능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 통합 교육을 통해서 학생을 본질적인 학생이 갖고 있는 궁금증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에 관한 결과물도 학습자 스스로 찾게 되어 자기 지시성과 독립심을 계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직접적인 경험과 자발적인 발견은 학생들에게 탐구 시간을 확장 시켜줌으로 학습이 강화된다. 35)

35) 김재복 , 전계서, p. 258

셋째.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역사교과와 미술교과의 교육과정을 접하면서 탐구를 하면서 문제의 해결 할 수 있는 사고를 접할 수 있다. 즉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획득하고 본다. 각 교육과정이 특징이 있듯이 미술교과에서는 ‘과정적’개념으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모든 단계를 거치는 전략이 제시된다. 또 역사에서는 탐구학습의 원리와 개념 학습의 원리를 선택하여서 보다 역사에 대한 접근을 효율적으로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거부감을 직접적인 경험과 자발적인 발견을 찾고 중요개념의 획득을 하고자 한다.

넷째 . 이 프로그램은 타 교과 중에서 역사교과를 통해 미술에 있어 본질적인 삶의 의미를 찾아 가고자 한다. 현재가 존재 하는 것은 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과거에 대한 지식을 탐구해야 한다. 이 수업에서는 시간에 있어서 정해 놓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작성하도록 제시 한다. 이 현대 사회를 이해하고, 우리들의 일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국사회의 즉 한국의 역사와 소통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현대사회에서는 세분화된 지식의 개념을 통해 다양한 능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는 자아실현과 사회적 의식 함양을 위하여 경험을 토대로 통합적 관점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통합교육과정도 다양한 시도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교육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만 교과간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많은 교과를 통합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나, 교과 마다 추구하는 의미 및 관점이 다르다. 이는 소재에 따라서 알고자 하는 지식의 습득에 있어서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각 영역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게 되면, 학습자는 오히려 혼란스럽게 된다.

본 연구는 미술교과와 역사교과를 주제중심통합교육으로 탐구하고, 학습활동을 제안 하였다. 학습활동을 통해서 미술활동 중심으로 현 교육과정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전인교육을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미술교육의 확대로 새로운 미적 체험에 대한 함양을 하고자 한다.

두 교과를 통해 각각의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미술교과에서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인 활동을 중시 한다. 역사교과에서 교육과정은 역사적인 사건이나, 문화를 통해서 역사 학습에 대한 흥미와 창의적 사고력을 높여 준다.

두 교과에서는 통합적인 활동을 중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자는 통합지도 학습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습활동은 시각적, 구체적인 것에 대한 흥미를 갖는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두 교과가 갖는 충분한 장점을 살리면서 다양한 경험 활동을 통합함으로써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미술교과와 역사교과의 통합에 의해 제시된 통합지도 학습활동 안에서 ‘꿈

을 기억하노라'와 '우리 동네 네비게이션'으로 주제중심 통합을 정하고, 이에 따른 두 교과에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미술과 역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미술이라는 과목에서 역사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소재이다. 미술품은 역사를 상징하고 있으면, 현재와 미래의 소중한 재산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현대 사회의 시사점을 이해 할 수 있고, 동시에 두 교과에서 갖는 삶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또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미술의 미시적 안목으로 그 시대의 역사를 유추 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둘째, 미술교과와 다른 교과의 연계를 통해서 학습자는 직접적인 경험으로 문제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발견하여 평상시 보다 흥미롭게 수업을 할 수 있다.

역사교과는 암기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학습자들이 부담감이 된다. 잠시 읽지 않게 되면 쉽게 잊어버리고, 흐름을 파악 하지 못하면 내용이 나 그 시대의 사건을 잇기 쉽다. 하지만 미술교과를 통하여 이미지를 제공하고 동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같이 제시 하게 된다면 학습자들도 스스로 궁금증을 유발 할 것이다.

셋째, 두 교과가 통합하였을 때 , 학습자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현재 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여 스스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하는 형식으로 학습자가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내용을 제공해줌으로써 기존의 피동적인 수업에서 벗어 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술과 역사라는 교과를 한 주제를 가지고 현재의 측면에서 주제를 접근하고, 또 과거와 접하여 자료 수집을 통해서 재구성 하였다. 그래서 그 그려진 과정을 통해 얻는 이해와 통찰력을 활용해 적절하게 작품을 만들어 내면서 학생들에게 개개인이 삶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통합지도 학습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통합교육에 관하여 개선되어야 될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식은 연결 고리를 통해 다 같이 이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현 교육 과정에서는 피동적으로 운영하여, 학습자들이 문제에 있어서 홀로 책임을 갖고 학습을 할 경우가 있다. 학습에 대해서는 학습자와 교사간의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통합교육에서 중요한 교사의 역할은 이미 제시된 정답보다는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 상황, 또는 화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육에서는 만들어진 정답으로 학습자들을 판단하고, 정의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사는 조력자와 같은 역할을 통해 학습자가 보다 더 넓은 세계를 인지 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어야 한다.

셋째, 경쟁보다는 협동할 수 있게 지도해야한다. 경쟁 사회를 사는 학습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 점 일 것이다. 통합을 하고자는 하는 것은 경쟁보다는 협동을 통해서 공통점을 찾고, 학습자들 간에 소통을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교육은 인간의 통합 지향적인 성향에 일치시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교과 통합적인 운영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개념, 지식’중심의 주제를 지향하고, ‘활동’ 중심의 주제를 선정하여 학습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나은 통합교육을 위해서 미술교과의 특색을 살리면서, 타 교과의 통합의 수업에 활용 할 수 있는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단행본 >

- 강충열, 권동택, 정광순, 『주제 중심 학습프로그램이 통합적 사고 성향 및 자기주도적 학습력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2010
- 김성숙외 8,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2009
- 김정, 김춘일 외9, 『미술교육학원론』, 예경, 1998
- 김정선, 박남정, 박유정, 연혜경, 이은영, 『교과와 미술 통합 수업에서의 예술적 특성』, 한국미술교육학회, 2009
- 김영광, 『GLORY』 교육학- 교육과정, 교육대학원, 2004
- 김춘일, 『중등미술교육론』, 교육과학사, 2002
- 김대현, 이영만, 『열린교육을 위한 학교중심의 통합교육과정 개발』 양서원, 1995
- 김한중, 『역사수업의 원리』, 책과 함께, 2008
- 김한중, 『역사수업이론의 재개념화』, 한국역사교육학회, 2007
- 김홍숙, 『Efland의 미술교육 사상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2008
- 노용, 『주제중심의 미술 교육과정 통합』,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2005
- 노용, 『미술과의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 개발의 예 - 초등학교 3,4 학년 '전통 민족 놀이'를 중심으로』, 한국미술교육학회, 2005
- 박영택, 조광석, 『예술 교육이 미래를 연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
- 방지원지음, 『역사교육 계열화의 개념원리』, 책과 함께, 2006
- 서울교대미술교육연구회,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2008
- 손승정, 『문제중심 학습 (PBL) 을 기반으로 한 미술과와 타 교과의 통합교육 방안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 24권 1호, 한국미술교육학회 2010
- 신영복, 『나의 동양고전 독법 강의』, 돌베개, 2010
- 이영준, 정귀남, 『통합교과 주제 중심 통합학습이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 및 학업 성취에 미치는 효과』, 부산 유아 교육학회, 2006
- 임정기, 정옥희, 최수영, 홍기태, 『미술 교수학습 패러다임 변화와 실천을 위

- 한 이론 과 방법』, 교육과학사, 2010
- 조병래, 강재희, 『아카데미 미술』, 교학사, 2006
- 최완기, 『역사학습지도의 원리와 실제』. 느티나무, 1997
- 한국교육과정학회,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2002
- Robin Forgrty, 『교사를 위한 교육과정 통합의 방법』, 원미사, 1998
- 톰 앤더슨, 멜로디 밀브란트, 『삶을 위한 미술교육』, 예경, 2007

< 학위 논문 >

- 고기혁, 「창의적 교수법을 통한 중학교 역사수업이 학생들의 태도와 탐구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곽서연, 「중학교 2학년 미술과와 국사과의 통합교수- 학습프로그램 개발: 한국미술감상 수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김미연, 「미술- 역사과의 주제중심 통합적 미술교육프로그램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 김보라, 「Neo-DBAE 의 통합적 미술교육과정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 김연수, 「미술과와 체육과의 통합적 접근지도 방안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 김영주, 「주제중심통합학습에 대한 조사연구 북아트를 통한 국어과와 통합지도방안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 김현규, 「포가티의 계열모형에 의한 음악 - 국어 통합 학습지도 방안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 박세원, 「글로벌시대를 위한 통합교과로서의 미술교육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 서경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주제중심통합단원 설계」, 대구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2010
- 윤미리, 「중학교 2학년 미술 감상교육에서 국사과의 통합지도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 이현서, 「시민교육을 위한 주제중심 통합미술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중학생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 장진이, 「중학교 미술교과와 국사 교과를 통합한 새로운 미술교육 프로그램」,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 장지영, 「미술과와 타 교과 통합교육 방안연구 : 프로젝트학습법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차명준, 「미술감상교육을 통한 통합지도 방안연구 : 국사교과와 미술교과의 통합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 최나리, 「중학교 2학년 미술, 과학교과의 통합수업이 학습동기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 표지숙, 「개정초등미술과 교육과정 (2007)에 근거한 교육과정 통합 모형 개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